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모든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을 찾는다!

라이프웨이,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 여부 설문 결과 통해 나오지 않는 교인 찾아야 한다고 촉구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Evangelism Explosion)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적어도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에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34%는 한 달에 4번 이상, 30%는 1~3번, 36%는 1번 미만으로 출석했다. 현재 26%는 한 달에 4번 이상, 31%는 1~3번, 43%는 한 달에 한 번

미만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매달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기독교인의 비율은 64%에서 57%로 7%포인트 떨어졌다.

따라서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교회는 전염병 폐쇄 기간 동안 잃어버린 현장 예배 참석자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Some Previous Churchgoers Are Still Missing Post-COVID).



마땅히 행할 길, “성경 읽기”를 가르치라!

TGC, 여름 방학 맞아 자녀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노하우 제시

우리는 왜 자녀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자녀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녀의 학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곧바로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분명히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자녀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읽는 법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 대답은 매우 분명하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다. 성경은 자녀가 평생 읽을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하다. 토니 라인케는 말한다. “모세가 두 개의 돌비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후 이 세상에 있는 책은 성경과 그 외의 책들로 구분되었다.”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자녀가 표지판의 글씨를 읽고, 문자를 읽으며, 전쟁과 평화와 같은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것도 또 다른 유익이다. 그러나 그런 유익은 성경을 읽는 유익에 덧붙여 오는 유익에 지나지 않는다.

문맹자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데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들이는 선교사도 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 파송 받은 선교사이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자녀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녀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문자를 읽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녀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How to Prepare a Child to Read the Bible).

(3면으로 계속)



2022년 3월 퓨 리서치(Pew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예배당의 5%만이 대면 예배를 위해 문을 닫았지만 정규 참석자 3명 중 2명만이 돌아왔다. 이전 라이프웨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교회의 97%가 2022년 1월에 직접 만났지만 평균 교회 출석률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74%였다.

다른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은 팬데믹 이후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2022년 3월 YouGov 추적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만이 COVID-19에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월의 45%와 2020년의 60% 이상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2022년 5월 Gallup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났다고 말한다. 5명 중 거의 4명(79%)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더라도 일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21%는 모든 것이 팬데믹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58%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상화의 회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인이 아직 교회 예배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출석률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염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인들은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서, 미국 개신교 신자의 91%가 적어도 대유행 이전만큼 자주 대면 예배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거의 참석하지 않을 계획(6%), 아예 참석하지 않을 계획(2%) 또는 직접 참석하지 않을 계획(1%)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아직도 실종된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들의 결석이고의적인 결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습관의 생성이다. 그들은 교회에 나가는 관습에서 벗어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교인 부재는 교회 지도자가 의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쫓는다고 말씀하셨다. 많은 목회자가 코로나 이후 양 떼에서 한 마리 이상의 양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

려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목회자의 어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그룹 교사, 아동 사역자 및 기타 교회 지도자들은 실종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의도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잃어버린 습관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걷고 격려해 줄 때 그 일은 더 쉽다.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4면 푸른초장 홍규표 목사



16면 인터뷰 이상엽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가르기기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라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새생명선교회 한인장학생 모집

New Life Mission Foundation Scholarship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는 COVID-19 등으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미 한인 가정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장 학 금 액 : 학생 1인당 \$1,500
- 총 선발인원 : 100명
- 지 원 대 상 : 미국내 4년제 정규대학(신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 신 청 방 법 : newlifemissionfdn.org 에서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이메일(또는 우편메일) 제출
 - 첨부서류: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수입 증명서, 추천서(출석 교회 담임 목사)
 - 우편 메일 주소: KCMUSA 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 CA 90005
- 신 청 기 간 :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 결 과 발 표 : 8월 6일(토, 예정), newlifemissionfdn.org 웹사이트와 이메일 공지
- 장학금 수여 : 8월 6일(토, 예정) 이후 우편으로 체크 발송
- 문 의 : ● 전화: 1-213-365-9188(KCMUSA) ● 이메일: newlifemissionfdn@gmail.com ● 웹사이트: newlifemissionfdn.org 참조



SCAN ME

* 신청 접수는 KCMUSA(재미한인기독교재단)에서 주관합니다.

발행인 칼럼

누님은 어디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나의 누님은 여섯 분이다. 그중에 다섯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는데 한 분은 도무지 모르겠다. 큰 누님은 천국에 계시고 둘째 누님과 여섯째 누님은 한국에 계시다. 셋째 누님은 캐나다에 넷째 누님은 미국에서 사신다. 다섯째 누님은 만나 뵈는 적도 없고 어디에 계신지 아니 지금까지 살아 계신지조차도 모른다. 1950년생이라 하시니 올해 일흔 두 살이시다. 그 누님 때문에 아버님이 흘리시던 눈물이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된다. 1983년에 흘리신 눈물이다. 그때 KBS 남북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있었다. 아버님은 그 방송을 보시면서 북녘에 홀로 두고 온 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다. 흐르는 눈물이 왜 그때뿐이셨는가. 헤어질 때 갓난 아이였을 딸의 얼굴을 아버님이 기억하고 있었을까. 황해도 안악 출신인 아버님은 월남(越南)하시기 전에 평안남도 진남포 비석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진남포에서 그 딸을 미처 데리고 오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 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이 날을 /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떠날을 ---” 잊을 수 없다. 잊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점점 잊히고 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고 물어보라.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어보라. 1950년 6월 25일에 북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어린이나 청소년 심지어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공산주의자들은 잘 속인다. 거짓말이 중요한 전략이다.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그들의 인민을 향하여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방송을 틀어놓았다. “미제의 앞잡이 이승만 괴뢰 국방군이 평화로운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침공하여 북으로 진군하고 있다. 만일 즉각 퇴각하지 않으면 우리 용감한 인민군 전사들은 반격을 가하여 격퇴시킬 것이다.” 그 당시 민족 보위상(국방부장관) 최용건의 성명(聲明)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저들의 작금(昨今)의 작태(作態)를 보라. 70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은 민족상쟁의 아픔을 저질러 놓고도 여태껏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핵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대화에 기대감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공산주의자들과 대화에 허망한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미국도 공산주의와의 대화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크게 속아 넘어갈 뻔했다. 공산주의자가 줄 수 있는 행복은 전혀 없다. 세뇌된 행복을 강요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생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 신이 없다는 어리석은 유물론자들에게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에서의 6월은 호국의 달이다.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역사를 돌이켜 보고 공산주의와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더 이상 공산주의와의 낭만적인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아버님은 딸을 잃었고 나는 누님을 잃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겪은 고통 중에 일부일 뿐이다.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공산주의에 대처하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가족을 또 잃을 것이다. 민족이 더 큰 도탄(塗炭)에 빠질 것이다.

지구촌 물가 상승, 배급에 의존하거나 떠난다!

BBC, 전 세계 물가 상승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5개국 현지 특파원 보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이 증가하면서 흉작이 잇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품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더해 세계은행(WB)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비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5개국의 BBC 현지 특파원이 최근 전 세계 물가 상승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Cost of living crisis: Relying on food handouts and moving country).

브라질: '농업강국'이란 말이 무색, 텅빈 주민들의 냉장고 분석: 케이티 왓슨 BBC 브라질 특파원

브라질 상파울루 아라카라에 사는 로시안 이나시오 불레스 데 올리베이라라는 생필품을 사기도 벅차다고 했다. 자녀 넷을 둔 올리베이라는 이제 배급품과 할인 식품에 의존한다.

올리베이라가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다.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냄비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 또한 "직장 상사가 콩과 베이컨으로 만든 음식을 버리려던 참에 얻어온 음식"이라고 했다.

지난해 브라질의 생필품 및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에 달했다. 농업 강국 브라질이지만, 국민 4명 중 1명은 식량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다.

급어는 오르는 식량 가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비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농작물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리베이라의 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식용유 가격이 치솟자 올리베이라와 아버지 이란다는 식용유를 비누로 재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

뉴질랜드: 호주로 떠나가는 사람들 분석: 샤이마 칼일 BBC 호주 특파원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월세 또한 작년만 해도 12% 오르면서 세입자들 눈앞에 닥친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이에 더불어 석유와 식량



가격도 오르면서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로의 이민을 고심하고 있다. 호주에 선 삶을 꾸리고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 건축업자로 일하던 크리스와 아내 하모니는 딸 넷을 데리고 살던 웰링턴을 떠나 호주 브리즈번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이들 가족의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월급도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삶은 녹록지 않았다.

크리스는 "아이가 넷이라 돈이 많이 든다. 호주에서도 생활비가 점점 더 비싸진다고 말하지만, 지금 호주 물가가 뉴질랜드 5년 전 물가"라고 말했다.

하모니에게 고국 뉴질랜드와 가족을 두고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모니는 "뉴질랜드에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삶이 없다. 퇴보할 뿐"이라면서 "살고 싶다면, 주민들이 이민을 가던가, 뉴질랜드가 바뀌어야만 한다. 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길 바라지만, 뉴질랜드엔 미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 등 몇몇

단기적인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게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탈리아: 에너지 가격 2배 오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 분석: 제시카 파커 BBC 유럽 특파원

철강업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브레시아의 심장과도 같다.

지난 15년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각종 역경을 견뎌온 브레시아의 철강업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지역 봉쇄로 철강 무역은 더욱 차질을 겪고 있다.

미렐라와 루카스는 브레시아의 한 주물 공장에서 만난 사이이다. 이들의 임금은 변화가 없지만 식량, 석유,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있다.

미렐라는 "최근 다른 사람 것처럼 전기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집에 있지도 않은데 전기요금 2배가 됐다"고 말했다.

루카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저금도 많이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이 일하는 주물 공장에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에서 들어오는 주요 원자재가 부족한 현실이다.

가나: 식수 비용이 한 주 예산을 갉아먹는 현실 분석: 농사 마세코, BBC 서아프리카 특파원

마크 임프레임은 가나에서 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중 하나다. 임프레임은 지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인 '졸로프 라이스'(볶음밥과 유사)에 필요한 채소를 구매한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비용이 2배 올랐다고 한다. 임프레임은 토마토 한 통에 적힌 가격표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토마토 한 통은) 원래 20세디(약 2달러 50센트)이었지만 이제 40세디"라는 임프레임은 "그렇다면 판매하는 음식 가격도 2배 올려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41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주제: 모든 것의 중심되신 예수

* 저녁시간은 지역사회 모든 분들께 OPEN됩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세미교회 설립목사



Vance Pitman
Send Network 총재
전 Hope Church 담임목사



Jeff Iorg
Gateway 신학교 총장
전 서북미주총회 총재

■ 기간 : 2022년 6월 13일~15일

■ 장소 :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총회 행사 문의

준비위원장 김명하 목사 (714) 280-5684
준비위원총무 민승배 목사 (310) 938-0824



마땅히 행할 길...

(1면에서 계속)

가장 위대한 책을 읽는 법

이것은 별것 아닌 차이처럼 보인다. 결국, 읽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맞는 말이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아이건,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하며 단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이건 상관없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보다 더 잘 읽기 위해서이다.

읽기의 목표가 성경이라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 달라지면 자녀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더 좋은 독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

하는 능력 등.

- 2 단계: 단어 익히기—기초 단어를 읽는 능력, 맥락과 연결하여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능력 등.

- 3 단계: 기능적 독해—단어들의 조합을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 맥락과 연결하여 단어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능력 등.

- 4 단계: 향상된 독해—이전에 익힌 능력의 개선 및 강화

이 가운데 우리는 1 단계와 2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한다.

1 단계: 읽기 준비

이 단계의 목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알파벳을 배우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 자녀가 부모의 독서 습관을 모방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또한 (2) 성경 이야기와 인물을 자녀에게 노출하는 것도

시간을 일부러 구분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가 지켜보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녀가 지켜보게 하는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위한 시간이다.

성경 읽기에 대한 자녀의 열망을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녀에게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읽기는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를 피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의 본래의 의미는 그대로 간직한 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Jesus Storybook Bible,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Easy to Read Version 같은 다양한 어린이 성경을 쉽게

게 단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녀와 함께 야외로 나가 보라.

시편 19편은 노래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1-2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통로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계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스콧 스텔처(Scott Steltzer)는 이렇게 설명한다:

“창조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간직하기 위한 좋은 마음 상태이다. 이는 간단한 단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다음 단어들을 큰 소리로 읽어 보라. 한 단 어씩 읽은 후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단어들과 성경을 연결해 보라: 양,



시론

초등학교 총기사고를 보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5월 24일(화)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에서 80마일 떨어진 인구 16,000명의 조그만 도시인 유발디(Uvalde) 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생명을 잃었고 17명의 학생이 부상당했습니다. 범인은 18살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살바도르 라모스(Salvador Ramos)로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의 나이는 9살, 10살, 11살에 이르렀으며 교사들은 40대입니다. 사건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났지만, 이 사건이 남기게 될 후유증은 앞으로 수십 년에 이를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평생 아프고 쓰러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며 생명은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게 될 또 다른 아이들의 삶에서도 이 사건은 지워질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컬럼비아고등학교(1999-12명 사망), 샌디훅초등학교(2012-26명 사망), 플로리다의 더글라스고등학교(2018-17명 사망)에서의 사고 등 1966년 이후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은 무려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총기 난사 사고의 통계를 보면 범인들의 평균연령은 18세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에 일어난 14건의 사고 중 12건에서 범인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든지 아니면 졸업생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분노에 사로잡혀 총기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사고 근절을 위한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 혹은 대비책은 없을까요? 보수진영에서는 ‘총기’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대답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를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더라도 마치 운전면허증 소유가 일정한 나이를 요구하는 것처럼 총기 구매도 일정 나이를 넘기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학교 총기사고 범인들의 평균연령이 18세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총기 구매 나이를 높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제한하기만 해도 학교 총기 폭력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3가지를 언급합니다 - 도망하라! 숨어라! 안되면 싸워라! Run! Hide! Fight! 총든 범인 앞에 가지 마시라는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뛰거나 숨던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기방어를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충고를 듣고 있다 보면 은근슬쩍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어진 해결책이라면 충분히 받아 드릴 수 있지만 얼마든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새싹들에게 어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충고가 ‘도망하라! 숨어라! 안되면 싸워라!’라는 것이 너무 아비하고 무관심한 말로 들립니다. 마치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라는 말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동자보다 더 귀한 그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진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로하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며 오늘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말해야 하는 부끄러운 어른의 자리에서 그들 모두에게 진실한 용서를 구하며 ... 살롱.

hankschoi@gmail.com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 파송 받은 선교사... 자녀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

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자녀는 다른 유형의 책에도 더 좋은 독자가 되는 유익도 덩어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40년에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모티머 애들러(Mortimer J. Adler)는 독서의 기술(How to Read a Book)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애들러는 이 책이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책을 읽는 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잠 4:7). 그러므로 애들러가 제안하는 방법은 서구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 읽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은 우리 자녀가 가장 위대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읽기의 첫 단계는 초보적 읽기이다. 애들러는 이 수준의 네 단계는 초등학교 저학년 커리큘럼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 1 단계: 읽기 준비—지시를 따르는 능력, 집중을 유지

좋은 방법이다.

자녀가 마음에 “열망을 갖게 되는” 주된 통로는 모방이다. 아이는 끊임없이 어른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따라 하고자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켜본다. 아이가 종종 당신에게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되는지 묻는 것은 커피의 맛이 궁금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이는 커피를 마시는 행동이 어른이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신이 하지 않는 행동을 엄마와 아빠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에 열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당신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녀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를 두고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갓난아이가 옆에 있을 때에는 성경 읽기보다 더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 이야기를 묶어 놓은, 가령 The Complete Illustrated Children's Bible 같은 시리즈 성경 이야기를 읽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별히 미취학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이 책은 성경의 원래의 이야기를 각색하여서 모아놓은 것이기에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장엄함과 너비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런 책은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매우 유익할 수 있다. 멀리 내다봤을 때 1단계에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이들이 성경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2 단계: 단어 익히기


이 단계에 아이들은 단어의 의미를 배우면서 어휘를 확장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단어의 의미를 들어서 배우거나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힌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 즐겁

푸른 초장, 하늘의 별들, 태양, 나무, 가지, 씨앗, 뿌리, 빛, 하늘, 바위, 개울, 모래, 파도, 폭풍, 구름, 천둥, 번개, 산, 들관, 절벽, 먼지, 돌, 메뚜기, 꽃, 참새, 사막, 바다, 불, 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물론 아이들이 양, 메뚜기, 겨자씨 같은 단어를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양털을 만져보고, 메뚜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겨자씨가 얼마나 작는지 느끼며 단어를 익히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고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관찰하는 것은 그저 재미를 위한 일만은 아니다. 이런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당신의 아들과 딸이 평생토록 성경을 읽을 때 영향을 줄 것이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org/kor/index.php>



SCAN ME



한편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 어 : _____	<input type="checkbox"/>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애양원 찾아가는 길

필자의 출생지는 전남 순천이었고 아버지의 고향은 여천 화지라는 곳이였다. 어려서 아버지 따라 화지의 큰 집을 찾아가는 길목은 언제나 나환자 마을인 애양원을 지나가야 했다. 그 동네를 지날 때엔 숨을 참고 빨리 달려야 나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에 어린 나는 힘차게 달리다가 숨이 잘 때에도 애양원을 등

지고 숨을 쉬곤 했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때라 애양원, 손양원 목사나 두 아들들의 순교사화도 일반적인 사건의 하나로 여겼지만 그 깊은 내용은 알지도 못하던 때였다. 어릴 때 단순히 나병환자들이 끔찍하게 무섭다는 선입견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는 애양원의 풍경만큼

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고 평생의 선망의 동산으로 각인된 곳이였다.

그 시대 내 눈에 비친 주변의 풍경들은 온통 파괴와 혼란과 무질서한 환경뿐이었다. 전쟁이 지나간 폐허 속에서 어지러움만이 가득했던 때였다. 도로와 공터엔 폭탄으로 움푹 패인 웅덩이들과 도처 도처에 불타고 뼈대만 남았하게 흩어져 있던 군용 차량들의 상흔뿐이었다. 그런데 애양원은 파란빛깔 광양만 바닷가에 초록색 숲으로 뒤덮인 한 폭의 그림이였다. 육중한 석조 건물의 서양식 예배당과 하늘 향한 뾰족한 종탑 위에 문게문게 떠 있는 구름들은 어린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미래의 선망의 유토피아의 풍경 그 자체였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거의 시골 큰 집을 가보지 못한 채로 30년의 시간들이 지나갔다. 목사 되어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삶의 현상이 그 애양원이었음을 알았을 때부터는 누구보다 먼저 일찍 그 현장을 지나다녔다는 기록권(?)을 간직하면서 살아왔다. 언젠가는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이민 목회

34년의 시간이 흘러간 후 드디어 며칠 전에 꿈에 그리던 애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실로 어린 시절 애양원 앞을 지나던 그 때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어제서야 애양원을 찾았던 것이다.

순전에서 자동차로 애양원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의 추억들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신작로 길에 멀지 않았던 거리였는데 예전에 없었던 거대한 여수 비행장의 블록 울타리를 한 참 돌아서 숨어있는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명찰을 붙인 정중하게 생긴 초로의 안내원이 친절하게 맞이해줬다. 그는 다가와서 자신이 손양원 목사의 막내아들이 손동길 목사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아주 익숙한 능변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서 태어났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애양원에 부임했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 1940년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에 맞서다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좌익 학생에게 두 아들을 잃었으나

그 학생을 양아들로 입양해 돌렸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북한군에게 잡혀 여수에서 총살당했다. 양아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암으로 48세에 세상을 뜨기 직전에 본인이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의 큰 딸 손 권사가 간증과 책을 쓸 때에 너무나 미화시킨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을 사실로 전하지 못하고 확대 미화시킨 것은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중에 내가 잘 못 알았던 것 중의 하나는 양아들을 미국 유학을 시켜서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참회의 삶을 살았다는 대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양아들은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신학교나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하나 과장된 전담은 손양원 목사께서 나환자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었다는 대목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했다. 물론 아버지의 신앙이나 인격으로 볼 때 필요하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직접 그렇게 했었다는 증언은 전혀 없었다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와전된 소문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할까 봐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이 나서서 바로 잡는 중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토록 동경했던 애양원의 진실과 감동을 현장에서 또한 손 목사의 아들들 통해 직접 들으며서 설교자들이 얼마나 진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강단에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해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예! 예! 아니오! 아니오!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너무 지나친 감동을 부추기려는 유혹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와전하는 것도 진실을 벗어나는 죄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애양원은 내가 어릴 때 품었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이번 방문에서는 그 풍경 속에 볼 수 없었던 더욱 감동스러운 사랑의 원자탄의 강력한 사랑의 분진들이 내 영혼 깊숙이 젖어들었던 실로 오랜 아름다운 감동을 안고 어릴 때 걸었던 바닷가의 돌을 걸어보았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홍귀표 목사

(KAPC 총회장, 시카고다민족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날씨, 상황, 박해, 질병 및 기타 어려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사랑의 봉사과 교제, 섬김과 기도, 전도와 사역들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다른 모임이나 조직(사회 조직, 공공 기관, 정치 정당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에 걸쳐 계속 남아있을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에게 힘 있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힘이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확인하십니다. 대답을 확인하신 뒤 그 제자들에게 교회의 기초와 권세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생각하고 부르느냐에 대한 답을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질문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이 질문에 제자들 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라” (17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므로만 되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면, 그가 실수를 할 때마다 온 교회의 기초가 그와 함께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베드로를 “이 반석”이라고 의미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반석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요? 베드로의 예수님이 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한 것입니까. 존 칼빈은 이러한 해석이 성경 전체 문맥에서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6장 1-13).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

의미합니다. 죽음은 사탄이 인간들을 파멸시키는데 쓰는 무기들 중 최고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2:14-15). 사탄은 이 죽음의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마비시키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 죽음의 힘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지혜나 무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죽음의 힘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교회는 이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은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나누고 싶다면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2)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권세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 예수님은 교회에 한 가지 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열쇠를 줄 때, 누구에게 열쇠를 줄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줄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줄지? 독도에 열쇠를 줄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쇠를 주거나 맡깁니다. 그리고 열쇠를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집이나 방, 창고, 사무실 등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신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예게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축복을 관리하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에 따라 하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의 권세와 축복을 매고 푸는 권세를 누리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면서, 그 고백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 하고, 가르치며, 전파함으로써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18-20).

escross@yahoo.com

교회의 기초와 권세

마태복음 16:13-20



I. 교회의 기초

1)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제자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4절)이 질문이 던져졌던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온 인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다른 의견들과 대답들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이다.” (16절)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였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대답과 다른 대답이였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 답변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이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기초로 삼으신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바위”란 베드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

것입니다.

2)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이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기초로 삼으신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바위”란 베드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

회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며,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사회 사업이나, 정치나, 학문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II. 교회의 권세

교회의 기초에 대해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첫째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를

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권세가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 나타나고 증명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막을 수 없다면, 이 세상에는 교회를 멈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래로 지난 약 2000년 동안,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한 수많은 제국과 왕국과 나라들과, 세력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결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박해와 공격에 맞서 교회는 승리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약속이 개별 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거룩과 고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거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훈련된 거룩이 삶의 고난을 제...

고난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크고 작은 고난의 문들을 통과하며...

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신도 가능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욱 예배하며, 그 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지 않으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흰 옷을 입혀 주시려는 것이구나!'

행복-거룩한 세마포

사람들은 행복해 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약삭같이 돈을 벌려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식이 보는 앞에서 거지같은 짓을 하면서...

어보고자, 자신이 가진 신앙의 지조도 다 내어버린 채 독재 같은 정당에 기생하며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계획된 고난, 주님 예배

깊은 예배를 통과하지 않고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교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길이 없다. 스무 살 때 예수를 믿었다면 서른 살이 되면 달라져야 하지 않은가? 욕심 환갑에 이르렀으면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 사촌을 달아...

하나님은 참되고 온전한 예배의 생활을 통해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가고, 우리를 그의 임재가 머무는 행복자로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방향 전환시키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된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이 임재할 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영국의 청교도들이 훌륭한 신앙인들이데 그들이 미국에 올 때 가졌던 청교도의 국가 비전을 알고 싶습니다. - 하버에서 이희은

A: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두 종류입니다. 분리주의자와 비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영국교회가 미신적인 로마 천주교회 예배와 계급적인 정치를 하므로 영국 국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개혁이 불가능하여 자기들끼리 나와서 새 교회를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3개월의 항해 끝에 102명이 항해를 통해 메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협소해 플리머스로 이동했는데 그들 청교도들이 소위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비분리주의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국교회에 남아 개혁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크리스찬 국가

하자는 자들입니다. 비분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존 윈스롭(John Winthrop)인데 그는 남아서 개혁하려고 하다가 계시론적 종말론에 입각해서 영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부패하면 하나님이 종말론적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30년 존 윈스롭은 70명을 거느리고 메사추세츠주로 갔는데 그 후에는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존 윈스롭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전에 미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불렸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존 윈스롭은 새로운 사회를 미국에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신대륙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언덕 위의 도시(city on a hill)"입니다. 미국이라는 신대륙 언덕 위에 성경대로 다스려지고 성경으로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성경 중심의 국가와 사회를 꿈꾼 것입니다. 그들은 "BiBliocracy(성경적 정치), Bible commonwealth(성경이 다스리는 연방 공화국)"을 꿈꾼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크리스찬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보았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존 윈스롭과 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정부가 다 성경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직자들이 청교도의 이상을 실천하기를 원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심계명이 사회 전체에서 철저히 준수되는 것을 감독했습니다. 초창기 북미 식민지를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었습니다. 마을의 회의는 교회 회의에 약간 세속화시킨 형태였고 교회 회의는 마을 회의를 약간 영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미국의 정치인들은 목사님 설교처럼 말하고 목사님들은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는 전통이 미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Korean American은 미국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씨로서 미국을 새롭게 하는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이기는 능력, 거룩

- 고난, 선택, 행복 -

다. 고난을 통과하며 겸손과 성숙함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더 강박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장로님을 알고 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노회와 교회재산 문제로 법정다툼을 하셨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논리적이면서도, 바른 말과 바른 생활을 하셔서 젊을 때부터 후배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좋은 분이셨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에 사로 잡히면서 교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법정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바뀌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단순한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시는, 아주 까칠하면서 까다로운 분으로 변한 것이다. 예전의 아주 똑똑하지만 인간적이었던 모습이 이제는 쉽게 말을 붙이기조차 어려운 그런 까칠한 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난과 선택

그 장로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

고난 중에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얻는다. 그 자리가 어디인가? 거룩함이다. 주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거룩을 온전히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거룩함을 경험한 이후, 그는 세상에서의 모든 질곡 같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 삶을 승리로 견인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룩을 위해, 삶의 지향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은 것, 거기서 참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 사람이 조작적으로 만든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고난을 통해 빚어주시는 거룩으로 만들어진 행복이다. 삶 속에 녹아있던 세상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거룩의 자리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듯이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마침내 삶을 비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행복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저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실 따름이다.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해서는, 마치 거지 누더기 옷을 이리저리 걸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행복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닮은 거룩에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세마포가 '거룩'이다. 쾌락이 인생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더욱 큰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많고 출세 번영하게 되어 감 사할 일들이 넘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서도 거지꼴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의 권력을 조금 더 품

있는 인격으로 씻겨 주시고 청결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그만 고난 앞에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물을 가져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항상 예배 앞으로 나아가, 말씀과 성령 앞에 부복하며 항복하는 과정을 지나야 한다. 벗어 버리고 떨쳐 버리며,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심정으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많고 출세 번영하게 되어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davidnjon@yahoo.com

글로벌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놨지만, 업체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기에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태국의 농부들은 전 세계로 수출할 정도로 쌀을 충분히 생산하기 위해 많은 비료가 필요하다. 계속 비농사를 이어 나가기 위해선 비료 가격이 반드시 떨어지거나 쌀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이 또한 쌀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에 우려되는 일이다.

료 가격 분석: 조나단 헤드 BBC 동남아시아 특파원

장맛비로 반짝이는 태국 수판부리의 눈에서 벼 농사꾼 분주아 이 습속과 이웃들은 비료를 뿌리고 있었다.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태국의 쌀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수도 방콕 북쪽의 수판부리에서 수확한 쌀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된다.

습속이 빗을 기록한 장부에 따르면 여전히 작년보다 400파운드 정도의 빗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쌀 가격은 낮아지고 비료 가격은 상승하면서 올해 수확이 끝난 뒤에 빗을 청산하긴 어려워 보인다.

작년 4월 태국에서 비료 가격은 550바트(약 16\$)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3배 더 비싸다. 태국은 비료 원재료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온다.

이에 태국 정부가 비료 가격을

지구촌 물가 상승...

(2면에서 계속)

한편 임프레임의 1주간 비용을 잡아먹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식수이다. 가나 세대가 평가절하되면서 식수 가격은 지난 4개월간 2차례나 인상됐다. 고객으로의 비용 전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식수 공급 업체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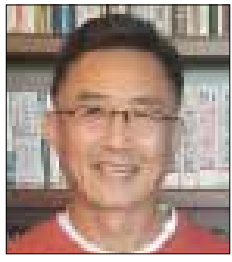
태국: 쌀 수출을 위협하는 비

Advertisement for Pastor Min's 6th month prayer service. Includes contact info for Philadelphia Faith Church and a list of participating churches across the US.

Advertisement for the South Korean Christian Press (NSCA)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Central Church.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핸들 계속 잡으세요”

자동차의 핸들을 앞으로 향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시동을 걸고 손으로 핸들을 잡지 않은 채 출발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출발 전에 핸들 방향을 바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앞을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갈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자동차가

달리면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비록 출발할 때 핸들 방향을 바로 잡아 놓았어도 자동차가 달리면 핸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회심할 때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바로 잡혔는데 삶의 현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비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지 속에 활동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지 속에 하나님을 거슬리는 반역적인 요소가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린다(갈라디아서 5:17)고 말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육체의 소욕의 중심

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는 ‘불완전한 의지’입니다. 마치 나무의 잔가지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듯이 우리의 의지 안에 활동하고 있는 죄 된 요소들을 끊임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 일을 구원받았다는 명분만 가지고 자신의 불완전한 의지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의지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는 한치의 오점도 결함도 없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핸들을 손으로 계속 잡아 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듯이 우리의 불완전한 의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핸들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명상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에는 온갖 잡신들이 들어와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은 묵상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도 우리와 교통이 가능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삶의 교훈을 얻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적용점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묵상하는 것이 기독교 묵상의 본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묵상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차면 우리의 불완전한 의지적 요소들이 그분의 완전한 의지에 의해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됩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의 보기 흉한 잔가지들을 잘라냈을 때 기분

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 안에 있던 불완전한 요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상쾌해집니다.

기독교 묵상의 핵심은 어떤 교훈을 얻어내고 적용점을 찾아내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완전한 의지가 우리의 불완전한 의지를 지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간절히 갈망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묵상을 통하여 누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현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새들백교회 워런 목사 후임에 앤디 우드 목사

미국 새들백교회는 새너제이에코교회 앤디우드 목사를 리워런 목사 후임자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리워런 목사와 사모케이 워런은 최근 새들백교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성도들에게 후임자를 발표하고 “아내 케이와 나는 우드 목사와 스테이시 우드 사모 부부를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고 선택하셨어서 새들백 마라톤의 다음 구간을 달리게 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워런 목사는 새들백교회 교역자 회의에서 우드 목사 선임을 발표하고 중직자들은 그의 선임을 확정했다. 새들백교회는 지난해 6월 워런 목사가 은퇴 계획을 발표한 뒤 후임자 청빙 절차를 진행해 왔다. 워런 목사는 “우리는 그동안 100명 넘는 후보자를 만나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과 의논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드 목사를 청빙하게 됐다”고 했다.



워런 목사는 지난 3월 우드 목사를 초청해 새들백교회에서 설교하도록 했고, 우드 목사가 새들백교회를 이끌 후임자로서 적합하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드 목사는 14년 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에코교회를 개척했다. 현재 에코교회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3개 지역에 캠퍼스를 마련했고 3000여명이 출석 중이다. 우드 목사 부부는 워런 목사 부부가 68세 동갑인 것처럼 40세 동갑이다. 우드 목사는 워런 목사와 같은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출신으로 워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우드 목사 부부는 “우리는 리워런 목사 부부를 존경했고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새들백교회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워런 목사가 1980년 설립한 새들백교회는 매주 평균 3만명 이상 출석하는 미국의 대표적 대형교회다. 그는 1100만명 넘는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전 세계에 4000만부 넘게 팔렸다. 2005년 타임은 워런 목사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워런 목사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 순서를 맡았고 정치 지도자들의 영적 교사 역할을 해왔다.

“괴롭힘당하는 건 우리 세대로 충분하다.”

중국 상하이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산드라 셴(27)씨는 남편과 자녀 계획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겪으며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다. 그녀와 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부부는 40세쯤 이른 은퇴를 하고 여행을 하며 살기로 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를 겪은 이들은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셴씨는 ‘경제수도’ 상하이조차 당국의 봉쇄 정책으로 가장 필수적인 식료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봉쇄 기간 공무원이 코로나19로 검역소에 이송된 주민의 집에 강제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고, 주인이 검역소에 격리돼 혼자 남은 게를 두드려 패 죽이는 영상도 봤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당국의 규율을 지키지만 하면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를 겪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차이나드림’에 본인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상하이의 한 극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위안(36)씨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 그는 4월 초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두지 못한 이웃들에게 매일같이 음식을 보내줬다. 그는 WSJ에 “내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부유한 거주자들조차 음식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오늘날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극장 개업을 꿈꾸던 그는 이제 위험도가 낮은 투자 상품에 돈을 넣거나 고향 하이퉁성에 식료품 가게를 열기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한다. 그는 “나는 내 직업과 가족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 매우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상태다”라고 말했다.

상하이 주재 한 미국 기업의 사내변호사인 아델리에 후(44)씨는 2013년 미국 뉴욕을 떠나며 고향 상하이에서 평생 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인과 결혼한 그녀는 봉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영주권 취득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후씨는 “나는 미국 정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단지 선택지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美 “워싱턴DC서도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힐에 따르면 워싱턴 DC 보건당국은 한 주민이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여 추가 테스트 및 원숭이두창 최종 판정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냈다. 오르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계열이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밀접 접촉자들에게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CDC에 따르면 현재 11개 주에서 25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사망 사례는 아직 없다.



원숭이두창은 발열, 오한, 두통 등과 함께 전신, 특히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발

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범칙 우려 땀 총기 압수... 뉴욕 서퍽카운티

지난 3월 말 미국 뉴욕주 서퍽카운티 경찰서에 이상한 긴급신고가 접수됐다. 16살 고등학생이라 밝힌 남성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을 모두 사살하고 싶다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경찰은 위치추적이 되는 911 긴급전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서퍽카운티 법원으로 달려갔다. 판사는 곧바로 이 학생의 집에서 모든 총기류를 압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 학생의 다른 총기에 대한 접근권 박탈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을 내린 판사는 며칠 뒤 “해당 장소에서 총기를 압수토록 조치한 것이 이 소년의 잠재적 총기사건의 범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최종 결정문을 발표했다.

뉴저지주와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자 미 정치권은 총기규제와 총기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에 총기 소유가 명문화됐지만 매년 재연되는 대형 총기 사건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뉴욕으로부터 90km 정도 떨어진 서퍽카운티는 총기소유권의 일시적 제한을 허용한 뉴욕주 ‘빨간 깃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위험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카운티 지방정부와 경찰, 지방법원이 하나가 돼 총기를 소지할 충분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소지한 총기를 위험한 목적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엔 예외 없이 총기를 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빨간 깃발법은 범치자나 범죄집단의 총기 소지를 막기 위해 뉴욕주가 마련한 것으로,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19개 주가 주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퍽카운티처럼 적극적으로 이 법을 해석해 일반 시민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하는 경우는 없었다.

서퍽카운티 지방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껏 고무돼 있다. 이전보다 총기에 의한 각종 사고가 70%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카운티 당국은 80세 이상 노인,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람, 가족이나 주변 친지에게 총기 사용 협박을 가한 사람 등에 대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기를 압수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111건의 총기 압수 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워싱턴 정가는 총기규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전면적 총기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보수진영은 위헌이라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미국 연방 차원의 빨간 깃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총기를 부당하게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총기 소유권을 박탈하는 게 넘쳐나는 총기 사건을 막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빨간 깃발법이 극히 제한적인 총기규제 조치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평했다.

미 국무부 “북한 조만간 7차 핵실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화를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비돼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고 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강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시작했고, 3번 강도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일방적 행동은 매력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우리에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취하는 안보 위협을 이해하고 있는 다수의 동맹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외교적 접근이 남아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또 사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현재 도발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점은 명백하며,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트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주최한 ‘한미전략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역대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을 방어하는 데에 철저히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트브링크 차관보는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완전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최우선적이며, 당연히 강철같다”고 강조했다.

크리트브링크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동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철같다. 북한이 취하는 위협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트브링크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가 없고,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심대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 노력에 대한 지지를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는 별개 문제이며 이 둘을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에릭 부투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핵산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의 맞대응에 대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떤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려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을 분명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분별없는 맞대응이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이냐”며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돈웰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요약하면, 권위와 기능에서 두 기관은 서로 다르다. 돈웰은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궤도에서 움직이는 혹성과 같은 존재 (as planets moving in different orbits)" 했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는 전적으로 영적인 기관이며, 교회는 사회적, 시민적인 목적들을 위한 인간의 조직체들과는 무관하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교회에 불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어 사회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회를 움직이게 하며 바른 시민적인 관련 기능들을 수행하게 한다." 교회의 사역의 영역은 성경에서 제한되어있다. 교회가 국가의 결정에 침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교회는 공적인 조직체가 아닌) 각 개인의 크리스천들이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돈웰은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4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신앙고백은 교회를 "교회에 관한" 사건에만 제한시키며, 국가와 관련 있는 세속의 일들에 간섭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4,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 이외에는 국가에 관한 일반 사건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돈웰은 교회가 국가에 일에 관여하는 원칙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두고 있다.

그러나 돈웰이 그들이 이교적이고, 이단적이며 위험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북부의 찰스 핫지와 남부의 돈웰은 모두 장로교 구파에 속한 19세기 위대한 정통 칼빈주의 개혁신학자들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 남북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교회론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다음은 돈웰의 노예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 알아보자.

돈웰의 신학은 역사적 개혁주의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하여 바른 신학을 든든히 세웠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볼 때에 그의 노예에 대한 이해는 잘못되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와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완벽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오류와 흠이 있었다.

1850년 5월 26일, 돈웰이 South Carolina, 찰스톤 (Charleston)에서 흑인들을 위한 교회당 헌당식에서 설교를 했다. 설교의 제목은 "주인들의 권리와 의무(The Rights and Duties of Masters)"이었고, 이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노예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교회 연합의 견고한 기둥을 흔드는 강력한 문제이며, 교회에 밀려오는 지진처럼 교회를 뿌리째 진동시키는 문제이다."

이 노예 제도를 명시적으로 죄악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한다" (no explicit condemnation of slavery in Scripture)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경은 단지 노예와 주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도덕적, 영적인 규칙만을 규정하였고, 노예제도 자체를 죄악시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인 삶의 규범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보다 더 멀리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only rules governing the behavior of slaves and masters, and Christians should go no further than Scripture in mandating moral

의 공장 주인들이 자기들의 노동자들에게 대하는 도덕적인 태도는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들에게 베푸는 자비에 비하여, 북부의 공장 주인들이 자기들의 노동자들에게 더욱 잔인하고 비도덕적임을 지적하면서 남부의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

돈웰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노예의 개념은 "노예는 그리스도 주인의 가족의 일부였으며, 노예 주인은 자기들의 노예의 신체적, 교육적, 영적 필요를 부양해야 하는 큰 책임을 수반했다"고 했다.

1850년대 미국 남북의 위기가 더욱

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일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면 부자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웰은 성경에 노예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죄악이라는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죄악시하고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supremacy of scripture makes claims to the contrary attacks against divine revelation)

돈웰에 의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된 역할은 죄에 묶여있는 영적 노예가 된 상태는 육체적 노예 상태보다 더욱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크리스도인 주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돌보아 주며,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들의 삶은 좋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돈웰은 노예제도에 대하여 매우 이상적인 복지 개념을 주장했다.

미국의 노예 제도의 전문 역사학자 유진 제노비스(Eugene Genovese)는 돈웰의 성경적인 노예의 개념을 이렇게 비판했다. "돈웰은 노예제도의 추하고, 착취적인 현실을 기독교 농장의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버전으로 만들었다(a romanticized version of idyllic Christian plantations)."

미국 남부 미시시피 책순에 있는 리프드 신학교 교장이었던 루더 G. 윌락(Luder G. Whitlock, Jr.)은 돈웰을 "가장 위대한 학자요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the greatest scholar and most talented man that ever lived)고 평가했다.

돈웰은 미국의 19세기 뛰어난 전통적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변호한 믿음의 투사이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미국의 남장로교회에 개혁주의 신학을 물려주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과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 "오직 성경으로 (sola fide)"라는 그의 정신은 곧 개혁주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다. 제임스 돈웰의 신학과 정신은 지금도 미국 장로교(PCA) 및 미시시피 책순의 리프드 신학교에서 그가 열정적으로 변증했고 세워나갔던 개혁신학이 계승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적인 개요는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KHL0206@gmail.com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 (11)

제임스 헨리 돈웰 (James Henley Thornwell, 1812-186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전통적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변호한 믿음의 투사, 성경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옹호한 모습, 인간적인 연약함 보여

그 당시 돈웰은 북부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의제 그 자체는 미국 남부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돈웰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 돈웰은 "성경

codes). 돈웰은 북부에서 노예 소유자들이 노예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비하여, 북부에서는 주인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북부 공장 시스템과 대조를 시켰다. 돈웰은 북부

심각해지면서, 남부의 돈웰과 같은 신학자들은 급진적인 북부 노예 폐지론자(radical Northern abolitionists)들의 주장에 심각한 위협에 사로잡혔고, 남부 지도자들은 남부 개혁 초기부터 남부 사회를 지탱해 온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버팀목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다.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미국 남부 사람들에겐 1850년대의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은 노예제도와 반노예제도(slavery vs. anti-slavery)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사랑했던 남부 사회의 생존의 문제였다 (a matter of survival for the society they knew and loved).

돈웰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노예의 위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았고, 노예를 한 형제와 보살피야 할 가족의 일원으로 보았다." 노예의 주인들은 무제한적인 힘으로 그들을 지배할 권한이 없고, 단지 노동에 있어서 그들에게 권한을 행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850)423-9700,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스교재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02)821-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동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30 Woodbourne St., Lanham,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문화: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니.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lc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423-9700, Cel: (213)703-90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산사제자들과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한</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6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0)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4장 영적 은혜의 전제 조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사 57:18)

1) 우리의 영적 삶의 활력과 위안은 죄를 죽이고 이기는 삶에 크게 좌우된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힘, 위로, 능력, 그리고 평강 등을 갈구한다. 그것들은 계속 죄를 죽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2) 평화와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

그렇다고 죄를 죽이면 무조건 그런 것들이 온다는 뜻은 아니다. 평화와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이다.

는 효과적인 요소이다.

4) 죄를 죽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

혜의 광채를 차단하는 뻣뻣한 구름과 같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활력과 힘은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만이 누릴 수 있

에도 계속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은혜들은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계 3:2).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



죄는 영혼 위에 드리워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광채를 차단하는 뻣뻣한 구름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활력과 힘은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만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위로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다(사 57:18).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이다. 평화를 얻는 수단을 이용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을 베푸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 원인은 신분상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죄를 죽이는 삶과 영적 은혜의 상관관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적 삶에서 위로와 활기는 많은 부분 죄를 죽이는 삶에서 기인한다. 어떤 면에서 죄를 이기는 삶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미치

(1) 죄는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그 힘을 빼앗는다. 정욕을 죽이지 못할 때 정욕은 영혼을 삼키고 영혼의 기운을 빼앗아 약하게 만든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된다. 죄는 영혼의 생각을 죄에 대한 나쁜 생각으로 채운다. 육체를 율법하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킨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2)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죄는 또한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 죄는 영혼 위에 드리워져 하나님의 사랑과 은

다. 죄를 죽이는 삶만이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5) 죄를 죽이기 위해 필요한 희생과 경계

영적인 삶의 생명과 기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나무가 얼마나 활력을 갖고 번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정원에 귀중한 화초를 심고 땅을 일구었지만 주위에 있는 잡초를 방치했다가 가정해 보자. 그 화초는 곧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잡초를 제거해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화초는 확실히 번성하며 자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심긴 성령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성령의 은혜는 죄를 죽이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다. 하지만 이와 달리 죄를 죽임으로써 마음 밭을 정결하게 하고 정욕의 잡초들이 생겨날 때마다 계속해서 뿌리를 뽑아내고 하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마음속의 은혜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받게 된다. 또한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실할 수가 없다. 죄를 죽이는 사람만이 가장 확실한 신실함의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신실함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커다란 기초가 된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영혼이 자아와 격렬하게 싸워야 한다. 그런 싸움에서 신실함이 나오는 것이다. yoo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영적 성장의 열쇠

팬데믹을 지나며 교회의 자매들이 영적으로 무척 힘들어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됐다. 작년 7월에 시작한 모임이 올해 5월에 마쳤다. 11개월 동안 매주 만나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매들의 영성 지수는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는 말씀 읽기가 예배와 가정생활 그리고 개인의 영성 생활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 명의 참가자들은 말씀 묵상을 지속하며 예배를 드릴 때 설교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가정생활에서는 감정조절을 할 수 있어서 부부관계와 자녀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개인의 영성 생활은 말씀 묵상 후 큰 폭의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음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몸은 힘을 잃고 생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매일 적당한 양의 음식이 필수 불가결하다. 마찬가지로 영도 양식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힘을 잃고 곤고해지며 삶의 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건강한 영을 위해서는 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양식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섭취할 때 제대로 씹지 않으면 체하여 몸의 신진대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할 때도 동일하다. 말씀을 꼭꼭 씹는 과정이 말씀 묵상이다. 꼭꼭 씹은 음식이 몸을 활성화하듯 말씀을 꼭꼭 씹는 이 묵상은 영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육과 영의 양식이 매일 공급될 때 건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A.W. 토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에서 "말씀의 순전한 뜻을 먹지 않는 신자는 약해지다가 완전히 짐체에 빠져버릴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한다. 필자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돌아보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한 지난 세월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지치고 힘들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 몸시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할 힘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무례한 사람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나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가 살아계시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를 존중하는 삶이며 성장하는 삶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N,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9:45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 클럽하우스 3 Lobby(주일 교회실 1층)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리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본당) 사목대장: 1. 영성사역자 2. 교회 발전도 여성선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림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n.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T.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lorancecgo.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cbk.kim@cbce.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성령의 단비를 갈망합시다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물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물이 61.8%, 단백질이 16.8%, 지방이 14.9%, 질소가 3.3%, 칼슘이 1.81%, 기타 1.39% 라고 합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물이 5%만 부족

해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빠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신체에 물이 1.5%만 잃어도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와 같이 나무와 식물들에게 있어서 물은 성장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준 나무들에서 과

파릇한 잎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는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고산이면서 건조한 지역에 있는 교회 동산에 심어 놓은 소나무 100주에 물을 주러 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묘목을 8년 정도 정성껏 키우신 분께서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셔서 5 에이커의 땅에

달이 지나자 소나무 잎들이 다시 진한 푸른빛을 띠며 살아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문득 내 심령에도 날마다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도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사랑의 단비가 끊임없이 내려야 영혼이 깨어있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고,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싶을 마음도 없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도 눈물의 고백이 없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나의 심령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

비였을 때, 아니면 자신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은 간절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빈들에 마른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매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매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적을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심령은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고 있습니까? 심령이 매말라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열정이 없

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가치들로 평가받으려 하고, 내 생 각을 관찰하려고 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받은 축복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의 심령에 내려야 할 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영적 무력감이나 영적 무기력에 처

매일 성령의 단비를 받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예 3:23) 항상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hotmail.com



굿스튜어즈클럽 대통령봉사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굿스튜어즈클럽 2022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선한청지기클럽 될 것”

굿스튜어즈클럽(Good Stewards Club 회장 김동일 집사) 제1회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4일(토) 오후 4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렸다. 김동일 회장은 “지난 2021년에 출범한 굿스튜어즈클럽에 함께한 중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 이벤트 많이 참여하여 봉사 활동을 많이 했다. 이를 위해 오늘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을 갖게 되

었다”며 “학생들이 수고하였지만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클럽운영이 어려웠을 것이 다. 앞으로 굿스튜어즈 클럽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찰리 강 목사(선한청지기교회 학생부) 시작기도로 진행된 시상식은 김동일 회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다음은

2021-2022 굿스튜어즈클럽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명단이다. △금상: 안젤리나 조(8학년), 갈렙 김, 제이든 김, 라이언 박, 에린 신, 사무엘 장, 백희주(이상 9학년), 브랜던 김, 코디 김(이상 10학년). △은상: 엘리온 정(7학년), 조수아 김, 김하음, 이사벨라 최(이상 8학년), 로렌이(9학년), △동상: 그레이스 은유 이(5학년), 애나 조, 이안 정(이상 6학년), 이형규 매디슨 배, 남하진, 엘리슨 조, 올리비아 정, 김미선, 나단 유, 니콜한, 조셉 김(이상 9학년), 저스틴 윤, 에린 조, 엔드류 민(이상 10학년), 폴 정(1학년)

이날 김현태 목사, 풀절, 에린 신, 라이언 박, 미셸스틸박 하원의원 봉사상을 받았다. 이들의 자폐아동 봉사, 야외활동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받게 되었다. 한편 굿스튜어즈클럽은 2001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글로벌선교회, 인랜드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원하트 워십 컨퍼런스 2022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 타원은 첫날 저녁집회에서 다니엘 뉴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원하트미니스트리 워십컨퍼런스

연합의 여정으로 가려면 예배의 길로 가야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 주최 원하트 워십컨퍼런스 2022가 ‘지금의 하나 되어 예배할 때’라는 주제로 4일(토)과 5일(주일) 토론펀츠오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열렸다. 4일(토) 오후 7시에 열린 저녁집회는 전은주 전도사(싱인도자)와 원하트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했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파시픽대학

교 교수)가 ‘연합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니엘 뉴먼 목사는 “예수님께서도 피조물들이 연합을 하기를 원하셨으며 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 피 흘림을 당하셨다”며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세워질 수 있지만 갈라지면 약해지기에 쓰러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먼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아파 하신다. 따라서 하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연합의 여정으로 가려면 예배의 길로 가야 한다. 예배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며 나의 상황을 다스

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죄를 이기게 된다”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피터박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이날 오후 1시에 열린 컨퍼런스는 피터박 목사가 ‘심플워십’, 류호석 대표(비손콘텐츠)가 ‘KPOP문화의 발전과 예배음악’, 랜디킴 프로듀서가 ‘예배음악이 콘텐츠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의를 했으며 예배인도, 아트디자인, 건반, 음향, 드럼, 베이스 등 선택강의가 진행됐다. 5일 열린 컨퍼런스는 종유석 전도사(데종필름대표)가 ‘영상 콘텐츠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김도일 목사(세계등대교회)가 ‘교회영상제작/콘텐츠 제작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했으며 미디어, 일렉기타, 건반, 밴드양상블, 촬영, 싱어 등 선택강의가 진행됐다. 둘째날 저녁 집회는 전은주 전도사와 원하트 그리고 지역교회 찬양인도자들이 함께 집회찬양인도를 했으며 고희찬 목사(토론펀츠오교회)가 설교했다. 한편 ‘원하트 워십 컨퍼런스 2022’는 8일 오클랜드우리교회, 11일 순복음타코마교회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찬양교회 담임을 은퇴하는 김성대 목사 부부(사진 왼쪽)와 취임한 이계선 담임목사 부부가 그라기엔 감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찬양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

김성대 목사 은퇴 및 이계선 담임목사 취임식

찬양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가 5일(주일) 오후 4시에 가졌다. 이날 김성대 담임목사 은퇴식과 이계선 담임목사 취임식이 함께 열렸다. 김성대 목사는 “은퇴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보니 마치 가족친목회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목회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 아내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모든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내 등 뒤에서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내와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퇴가 가능했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 새로 취임한 이계선 목사가 찬양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찬양교회 찬양팀 찬양인도와 이원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봉하 목사(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했으며 진건호 목사(남가주목사회장)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그라기엔 목사(LA지방연회 감독)가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이성현 목사(나사렛 한인총연합회 회장)가 영상으로 축사했으며, Josh Tigulia 목사(LA 1st Church),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담임)가 축사했다. 이어 열린 이계선 목사 취임식은 소프라노 진 에스더 집사가 특송했으며 그라기엔 감독이 이계선 목사의 취임을 선언했다. 이어 이날 참석하신 모든 이들이 이 목사를 위해 합심기도했으며 그라기엔 감독 기도로 취임식을 마쳤다. 취임식이 마친 후 교회 창립36년을 축하하는 케익절단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좋은비전교회 헌당예배에서 최준우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좋은비전교회 설립 3주년 및 헌당 감사예배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좋은비전교회(담임 최준우 목사) 설립 3주년 및 헌당 감사예배가 5일(주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양기현 전도사 찬양인도와 최준우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정봉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회고영상 소개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대하 3:15-17)”라는 제목으로 최준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최준우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을 섭리라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살아온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

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회서기 이용구 장로가 헌당경과보고 했으며 김태곤 목사가 축사했으며,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박영배 목사(뉴라이프선교회),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조명래 선교사(파라과이), 홍여호수아, 김은정 선교사(키르키즈스탄)의 축사가 영상으로 소개됐고 클라라 신 집사가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조광수 목사(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고 김광신 목사 천국환송예배를 드림

고 김광신 목사 천국환송예배

은혜한인교회를 창립한 고 김광신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4일(토)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한기홍 목사 집례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가 대표기도 했으며 그레이든 재섭 목사(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교회 원로)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레이든 재섭 목사는 “김 목사를 처음 만났던 것은 EV자유교회 기도모임에서였다. 풀러턴 브레아 플라센티아 지역 부흥을 위한 목회자 기도모임이 있었다. 첫모임이후 김 목사의 신실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

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 김광신 목사의 유일한 소원은 전세계가 복음을 듣는 것이었다. 둘째 사람들을 데루지하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하며 선교동참을 요청했다. 셋째 어려운 지역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김 목사는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는 천국에 입성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고 김광신 목사 생애를 담은 영상이 소개되었으며

(11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KWMC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예수, 온 인류의 소망 (Jesus, the Hope of the World)"(롬 15:12) 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1 일(월)부터 14일(목)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영렬 목사)에서 열린다.

등록비: 일반등록 Regular (6월 9일 June 9) \$280 / 후기등록 Late (6월 20일 June 20) \$320 / 현장등록 Walk-ins \$350
▲ 문의: kwmc.usa@gmail.com, http://kwmc2022.org, 한국: 070-4610-1346/ 미주: (714)603-7192

Youth Connect 2022 청소년 감동캠프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두란노 청소년 감동캠프, Youth Connect 미주 본부의 주관으로 6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 9시) 뉴욕충신교회 (담임 안재현 목사)에서 열린다. 대상은 6학년 - 11학년 (Youth 한 명 & 부모 중 한 명 참가, 선착순 20 가정) 이고 등록은 http://bit.do/YC2022NY, 등록비는 가정당 \$40 이다.

▲ 문의: 김대광 전도사 (646-322-4885)

'위러브' 예배 및 문화사역 컨퍼런스

한국 기독교문화사역과 예배사역을 주도하며 젊은 세대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위러브'(WELOVE)를 초청하여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6월 25일 토요일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예배 및 문화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등록은 weloveinny.com이며 교회단체 등록도 가능하다.

▲ 문의: 718-321-7800, 이진성 목사 201-888-4004

IT 강좌

비영리기관 네이버플러스 재단이 제공하는 JAVA Programming 초급-중급 강좌가 6월18일 - 8월13일 토요일 오전 10시(EST) - 12시에 열리며 선착순 20명. 수강료는 100달러 (보조프로그램 있음) 오리엔테이션과 첫강의는 6월 18일 (토) 오전 10시 (EST)에 있다. https://bit.ly/npjjava2022

▲문의: (201) 461-0909 / www.neighborplus.org

갈보리교회(UMC)에서 Youth 사역자 청빙

뉴저지 East Brunswick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UMC)에서 유스 그룹을 담당할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미국에서 인준 받은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영어 설교 가능,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실 분으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ckumc572@gmail.com 로 보내면 된다.

▲ 문의: ckumc572@gmail.com

뉴욕장로교회 임직식, 안수집사 21명 및 권사 7명 임직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는 지난 5일 주일 오후 5시부터 안수집사 21명, 권사 7명의 임직식을 거행했다. 임직예배는 담임 김학진 목사의 인도와 두나미스 찬양팀의 찬양, 성호영 목사의 기도, 김재연 자매의 특별 찬양,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원로)의 설교, 김희복 목사(뉴욕교회협회장),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의 축사,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의 권면으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나는 직분자 임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교회의 직분자임을 강조 하였다. 끝까지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를 도와 뉴욕장로교회를 함께 이끌어 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임직식에는 영어권 회중에서 4명, 한국어권에 17명의 안수집사가 임직을 받게 되어 총 21명의 안수집사와 7명의 권사가 새로 임직 받았다. 임직자들을 대표하여 나창현 안수집사는 담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 드린다"며 "임직자 교육을 통해 순종과 내려놓음, 성경적 재정관이 다름을 배웠다. 성령이 주신 마음을 품고 교회에 주실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충성스러운 일군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직자 일동들은 교회에 답례를 전달하였고, 김학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33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단체사진

제33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

목회학석사, 기독교 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신학사 총 10명에게 학위 수여

제33회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뉴욕 캠퍼스인 퀸즈장로교회(뉴욕 캠퍼스인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6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려 △목회학 석사-나일임, 박매자, 안진나, 허장길, 홍현숙, 김성애, 전일권, △기독교 교육학 석사-문인숙, △선교학 석사-이유숙, 신학사에 엄승희 등 1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본 졸업식은 학장 김성국 박사의 사회로 시작돼 기도 이윤석박사(뉴욕 노회장(교수), 김석남박사(캐나다분교 교무처장) 성경봉독, 홍귀표박사(KAPC 총회장) 설교, 정기태박사(분교 학감)의 학사보고가 있었으며 학장 김성국 교수의 학위수여 및 시상, 훈시가 있었다.

교장 정관일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말씀을 전한 홍귀표 박사는 "부르심은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소명을 주신 그 부르심은 은혜를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김성국 박사는 "모든 훈련을 끝낸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이 세대에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사역자가 되라"고 훈시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북미주 보수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APRC)의 정회원이며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영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이며 1987년 개교하여 현재 까지 총 5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김재상 기자)

이어 총동문회장 김경수 목사의 졸업생을 위한 기도, 이용걸 박사의 격려사, 조문휘 목사의 축사와 권면에 백운영 박사(본교 이사) 권면, 이종원 목사의 광고와 졸업생 대표 홍현숙의 답사가 있었으며 캐나다분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 후 단체 사진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종식 목사가 송호민 목사에게 선교기금을 전달하였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남아공 문성준 선교사에 선교후원금 전달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는 남아공 문성준 선교사에게 선교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종식 목사는 6월 1일에 문 선교사를 대신하여 총신대 동문인 송호민 목사에게 선교기금을 전달 한 후에는 문성준 목사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교회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매 주일 어른과 어린이 합쳐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크게 성장했다. 이제는 교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는 도미니카에 선교센터 및 어린이 사역 그리고 제자훈련 등 대규모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뉴욕교회협이 50여년 만에 처음 여는 대규모 뉴욕선교대회를 위해서도 후원금을 전달 한 바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퀸즈장로교회 선교 대바자회 열어

다민족, 다세대가 선교를 위해 동참한 의미 있는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지난 4일(토) 선교 대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선교 대바자회는 팬데믹 기간 중에 건축을 위한 소바자회로 진행해 왔던 것과 달리 3주간 매주 토요일 소바자회를 거쳐 마지막 4번째 토요일에 대바자회로 교회 실내의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다민족(한국어, 영어, 러시아, 중국어권) 예배 회중과 고등부부터 노년층 선교교회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모두가 동참하여팬데믹 이후 다시 온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바자회가 되었다. 지하 천교실에는 푸드코

트가 마련되어 다양한 식사와 각종 김치, 반찬류 등을 다양하게 판매 하였고, 온라인 오더를 활성화 하여 한 주간 미리 주문하고 픽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바자회 날에는 주문한 물품을 직장이나 집 앞까지 배달하여 편의를 더하였다. 본 대바자회는 당일 하루로 끝날 바자회가 아니라 중고 물품거래 등이 대바자회 전 한달의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모든 바자회의 수익 금액은 해외 선교지 지원과 선교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김재상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 5월 월례회가 25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 황영진 목사 부부가 참석해 선교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육민호 목사 사회로 기도 한준희 목사, 말씀 조상숙 목사, 합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조상숙 목사는 "가난한 자에게"(눅4:12-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은 극진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셨지만, 이 시대는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지고 가난이 결핍으로 나타났다"며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돕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또 간호사 출신답게 CP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며, "뺨과 복음으로 아동 후원 하는 기아대책 사역을 선교의 특색으로 끝까지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무에 앞서 황영진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선교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며 650여 가정에 구호식량과 마스크 등을 전달했으며 3교회 개척했다"고 전했다. 또 오는 7

월 4일부터 열흘간 단기선교팀 150명(월드밀알선교함장단)을 맞아 국립극장과 국회의사당, 군부대 등 공연과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 개회기도 후 시작됐다.

박 목사는 콜롬비아(김해정 선교사) 상황이 호전됐다며 기도를 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현지 사역자 구스타보 전도사의 미국 방문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기도를 당부했다.

또한 10월 둘째 주로 예정된 과테말라(장경순 선교사) 선교지 방문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방문 시에 장 선교사의 새 사역지 화장실 공사과 자연양계장 증축공사비를 위한 후원금(4천 달러)도 전달하게 된다.

이날 월례회는 한필상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으며 자리를 질성가든으로 옮겨 조상숙 목사가 오찬을 대접했다. 식사기도는 김인환 장로가 맡았다.

기아대책은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에 거주하는 89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아동당 한 달에 30달러다.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연락처: (917)667-8555, 620-8964

(기사제공: 기아대책기구)

ICM 화요 수보 기도자 학교

어두움에 있어 기도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어두움에 있는 이 시대, 기도하는 우리 민족의 장자는 기도를 깨워 자녀, 학교, 가정, 사회의 모든 영역의 무너진 곳을 막아 세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아카데미에 이 시대를 영동하는 당신을 초청합니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리빙네 지역 친구교회 (10주년)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연도 및 강사 김호성 선교사 (국제도시선교회-ICM 대표, 미국 재부흥 운동 대표, 750만 111부흥기도운동 대표)

ICM 화요 수보자 기도학교

"대부흥이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부터 일어나 온 땅에 임하기를"

"ICM 화요 수보자 기도학교"가 6월 14일(화)부터 8월 16일 까지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에 리빙네에 있는 친구교회(빈상석 목사)에서 열린다.

막아서는 수보기도, 역사 속에 일어났던 기도운동들, 단기 기도여행, 가족과 기도하기, 워킹 기도, 기도로 복음을 전하기, 세계를 품는 기도, 성경으로 기도하기, 기도 워크숍, 기도로 역사에 개입하기, 축복으로 기도하기, 직장생활 기도, 대화기도, 나눔기도 등을 배우고 기도한다.

기도학교는 국제도시선교회(ICM)가 주최하며, ICM 대표 김호성 목사가 인도 및 강의를 한다. 김 목사는 ICM 뿐만 아니라 미국재부흥 운동, 750만 111부흥기도운동, 뉴욕과 미동부 성서화운동을 이끌고 있다. 김호성 목사는 '수보자 기도학교'를 "이시대가 어둡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한국 민족의 기도를 깨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학교"라고 소개했다. 기도학교를 통해 개인과 소그룹 기도의 방법을 배우며 기도훈련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능력있는 소그룹의 기도, 삶 속의 기도, 현장 기도운동, 이 시대 무너진 곳을

구체적으로 능력있는 소그룹의 기도, 삶 속의 기도, 현장 기도운동, 이 시대 무너진 곳을

연합감리교(UMC) 뉴욕, 뉴저지연회 7월 1일 목회자 파송 예정

연합감리교(UMC) 뉴욕연회와 뉴저지연회의 일부 한인 목사들은 7월 1일자로 다른 목회지로 파송을 받는다. 뉴욕한인교회에는 최현덕 목사가 담임목사로 파송 예정이며 뉴욕한인교회 16대 담임으로 2012년

부터 사역해 온 이용보 목사는 베이사이드감리교회로 목회지를 옮겨 파송을 받았다. 문정웅 목사는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강을 건너 뉴저지갈보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정리: 김재상 기자)

남가주 한인신학교 2022년 봄학기 학위수여식 일제히 열려

미주장신대, KAPC개혁장로회대학, 월드미션대학교

남가주 한인신학교 2022년 봄학기 학위수여식 4일(토) 오전 일제히 열렸다.

△미주장신대 학위수여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 42회 졸업감사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4일(토) 오전 10시 본교채플에서 열렸다. 강우중 목사(학생인재개발 처장)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임윤택 목사(신교학박사 원장)가 개회기도, 신춘성 목사(신교학석사 디렉터)가 성경봉독, 김보름 재학생이 특송을 불렀다. 이날 서명성 목사(KPCA 부총회장)가 '생명보다 귀한 사명(행 20:22-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목사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박하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의식으로 복음사역자로 우뚝 서있게 되었다"며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의 삶을 살았다. 바울은 생명보다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사역의 원대한 계획을 기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서명성 목사의 축도로 1부 졸업식 순서를 마치고 이어서 김부빈 교수의 사회로 제2부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증 수여, 시상, 박사 학위 후드 수여식, 이상명 총장의 격려사, 졸업생 대표 최영환의 인사말, 교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학위수여를 받은 자들은 철학박사(Ph.D) 6명, 교차문화학 석사 4명, 상담심리학석사 11명, 목



미주장신대 졸업생들과 교수들



KAPC개혁장로회대학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학위수여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회학석사 19명, 학사 9명 등이 다.

△KAPC 개혁장로회대학교 학위수여식

제41회 KAPC 개혁대학교장로회 대학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 학위수여식이 4일(토) 오전 11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정현 총장은 "오늘 졸업한 학우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해주어 감사하다"며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 목회자가 사역할

때 사단이 거짓말로 공포심을 유발해서 포기시킬 때가 있다. 그러할 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첫째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둘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 셋째 한 영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오랜 시간 학교와 줌으로 개혁주의 신학 인격과 삶을 배웠다. 바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올바르게 배우고 졸업한다는 신학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영광위해 사역현장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기 바란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수철 박사(본교 이사장)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송일용 박사(KAPC LA노회장)가 대표기도 했으며 정인재 박사(본교 교수)가 성경봉독 했으며 정이영 사모가 특송했다. 이어 홍규표 박사(KAPC 총회장)가 '실패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동진

학감이 학사보고 했으며 이정현 총장이 학위수여와 훈시, 안병권 목사(총회서기)가 졸업생을 위한 기도를 했으며 김일건 학우가 졸업생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민종기 박사와 조대준 박사(이상 본교 이사/본교교수)가 축사했으며 전총회장 오세훈 박사(본교이사)가 격려사가 있었고, 김선중목사 축도로 마쳤다. 명예박사: 박대근 목사, 목회학 석사: 조셉정 전도사, 기독교교육학 석사: 김일건 집사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2022년도 제31회 학위수여식이 4일(토) 오후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오늘 졸업하는 학우들은 세계 전역에서 사역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19로 목회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사역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바라며 믿음의 선한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선목 부총장 인도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오규훈 교수가 기도했으며 총장, 부총장, 이사장이 학위를 수여했다. 이어 최원현 학우가 축사를 불렀으며 임성진 총장이 총장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임원숙 학우가 졸업생 담사를 했다. 이날 한정화 학우 인도로 졸업생, 회중, 교수단이 헌신의 기도를 했으며 교가제창 후 박중호 교수 축도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목회학 박사 3명, 교회음악학박사 2명, 목회학 석사 18명, 찬양과 예배 석사 3명, 신학석사 6명, 음악학 석사 5명, 글로벌 리더십석사 2명, 상담심리학석사 14명, 학부 48명 등 총 99명이 학위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자와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든든교회 설립 21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은규 목사

남가주든든교회 설립 21주년 감사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건강한 교회"

남가주든든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설립 2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5일(주일) 1부와 2부 예배시간에 드려졌다. 김현인 담임목사의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본 예배는 방진광 집사의 기도와 특별찬양에 이어 오은규목사(말라선교회 대표)가 감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 오은규목사는 "건강한 교회"(사도행전 2:43-3:10)란 제목으로 "건강한 교회는 내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 무관심하게 지냈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같은 시각, 같은 뜻, 한마음으로 더불어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야 한다. 또한 주

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남가주든든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복음 선포와 섬김과 공의로운 삶을 위하여 훈련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교회는 운요인이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 SRC성경 아카데미를 개설, 현재 과정 2코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뮤지컬 40주년 특별공연 다윗왕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40주년 특별 공연으로 초대형 창작 뮤지컬 '다윗 왕'이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열린다. 일정은 17일 오후 7시30분, 18일 오후 7시, 19일 오후 6시30분이다. 티켓 가격은 10달러다.

티켓은 은혜한인교회(714-446-6200), 은혜서점(714-446-1006) 외에 세리토스 북음사, LA기독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gracemi.com)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925)899-5707, ark1kim@gmail.com

나성영락교회 VBS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2022 VBS가 Zooming이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 문의: (323)227-1400

GBC 힐링 찬양콘서트 2022 '은혜, 그리고 행복'

GBC 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는 힐링 찬양콘서트 2022 '은혜, 그리고 행복'이 15일부터 26일까지 남가주 9개 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작곡가 손경민, 찬양사역자 주리, 이윤화, 색소폰 연주자 이기명, 피아니스트 김정희가 출연한다. 일정은 △15일(수) 오후 7시30분, 충현선교회, △17일(금) 오후 7시30분 감사한인교회, △18일(토) 오후 6시 세리토스선교회, △19일(주일) 오후 2시 동부사랑교회, △22일(수) 오후 7시30분 에브리데이교회, △24일(금) 오후 7시30분 복음장로교회, △25일(토)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 △26일(주일) 오전 11시50분 LW한인커뮤니티교회, 오후 6시 주님의빛교회다.

▲ 문의: (714)484-1190



올림픽장로교회 시무장로와 명예장로로 임직받은 새로운 장로들이 인사하고 있다

올림픽장로교회 창립 30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되길"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이수호 목사)가 5일 오후 4시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함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28명의 새로운 일군을 세우고 이 헌원로장으로추대, 권순암, 동용덕, 이응용 장로 은퇴식을 가졌다.

엘로힘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문상면 목사(한미노회서기)기도와 피세원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 설교로 진행됐다. 피목사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사도행전 3:1-10)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세 가지 변화를 받았다. 기도가 습관화 되었고, 함께 기도하며,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두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담대한 삶으로 변화됐다. 임직자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은퇴식과 임직식을 통해 △시무장로-김선찬, 문형배, 이태경 △명예장로-장충룡, 조한평 △시무안수집사-김도영, 김현필, 김호인, 이상인,

최영진, 함경호 △명예안수집사-여강선 △시무권사-구제니 퍼, 김양선, 문선실, 문혜원, 박해경, 신구만, 윤 샘, 윤경희 이 미희, 장정순, 정크리스틴, 최현주 △명예권사-김명자, 남혜영, 인제시카, 진인옥을 새로운 일군으로 세웠다.

축하와 권면을 통해 정모세 목사(CRC교단 선교혁신디렉터)는 "성령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진다. 임직식을 계기로 모일 때마다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란다. 지나온 30년 보다 더 좋은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지역사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와 임직자들이 되라"고 말했다.

이날 LASC 성악중창단의 특별찬양은 축하 분위기를 더해 주었으며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올림픽장로교회는 정장수 목사가 개척, 시무해 오다 지난해 12월, 2대 목사로 이수호 목사가 취임해 섬겨오고 있다. 교회에 관한 문의는 olympicch@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고 김광신 목사 천국환송예배

(9면에서 계속)

은혜한인교회 연합성가대가 조가를 불렀다. 이어 김원 전도사(장남), 박병섭 목사(국제총회 총회장), 김태규 목사(서울은혜교회 담임), 최규남 목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국제총회 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력으로는 서울대학교 영문학 학사, 탈봇신학교 목회학 석사 및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영진 사모, 장남: 김원(머느리: 김혜원), 장녀: 김리나(사위: 이승호) 손주: 김성경, 이종인, 이선재가 있다.

(박준호 기자)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연차총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제 41차 연차 총회

남가주 새누리침례교회, 13일(월)-15일(수)

제 41차 연차총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가주새누리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모든 것의 중심되신 예수'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연차총회 준비위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새누리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침례회 한인총회(총회장 김경도 목사) 제 41차 연차 총회 준비 상황과 교단에 대해 설명했다. 강태광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간담회는 최국현목사가 기도했으며 금번 총회의 코스팅을 맡은 박성근목사가 '코로나시대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인데 금번에 남가주에서 열리게 되어 모든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관심이 높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총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영하 목사(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는 "6월 2일 현재 862명이 등록했고 예년의 경우를 고려하면 12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총부 민승배 목사는 현재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 한 뒤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총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갔다. 이날 모임은 피터 최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남침례교(Southern Baptist Convention 이하 SBC)연례총회는 남가주 에너하임에서 같은 기간에 열리게 되며 한인 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들, 성도들이 참석하는 침례회 한인 교회 총회는 SBC 총회와 같

은 지역에서 열리게 되어있어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총회를 준비하는 스템들은 "금번 침례회 한인교회 총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축제요 집회다. 특히 저명 강사들이 이끄는 저녁집회는 은혜와 감동 그리고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저녁 집회는 총회 참석자는 물론 지역의 성도들도 초청하는 공개집회로 준비하고 있어 목회자들의 축제일 뿐 아니라 지역의 축제와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총회는 10개 세션의 세미나와 목회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회, 청소년 집회, 그리고 신학생과 한인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집회와 총회 후 3일 동안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세미나도 마련된다. SBC교단은 2020년 통계로 47,592개 교회에 1500만 성도가 소속되어 있으며 보수적 신앙노선과 선교지향적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본 한인총회를 위해 침례회 남가주 지방회장인 김영하 목사가 이끄는 총회 준비위원회는 8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가족 같은 총회로 목회자와 가족 모두가 위로받는 총회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에 관한 자세한 것은 민승배 목사(310-938-08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한국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 “리스타트” 연다.

한국교회 목회자 회복,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2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컨퍼런스에선 ‘리스타트(Restart), 회복에서 시작으로’(포스터)를 주제로 한국교회 목회자 회복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색한다.

다. 한국컴패션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의 사회로 ‘내년세대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 세계적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 ‘크레이지 러브’ 등을 집필한 프랜시스 찬 목사가 각각 내년의 회복, 리더십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다. 행사는 국내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0일까지 한국컴패션 교회협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제48회 세계선교대회 개최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 을 주제로 세계선교사 472명 참가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여의도 교회당에서 ‘제48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을 주제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472명이 참가한다. 8일 오전 10시30분에는 수요 1부

예배와 함께 선교대회 입장식이 진행되며, 오후 2시에는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레에서 ‘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주제로 한 이영훈 목사의 특강이 열린다. 오후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양양 솔비치호텔에서 ‘원주민 선교 30주년 수련회’도 이어진다.

신학대 교수 517명,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

“다수 국민 범법자로 만들 뿐 아니라 역차별 일으키는 독소조항 포함”

신학대 교수 500여 명이 차별금지법(차별법)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일으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교회와 성도, 기독교단체에 이어 신학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영환 총신대(조직신학) 교수 등 50여 명은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제1종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국민 범법자로 만들 뿐 아니라 역차별 일으키는 독소조항 포함’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에는 총신대와 고신대, 서울신학대 등 전국 14개 신학교와 517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성경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해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며 “역차별을 초래하는 전체주의적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조직신학) 교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별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이 법을 중심으로 재개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또 차별법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분명한 법안 표현과 평등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차별법 제정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말 이 법안에 대해 찬성 측만 참여한 ‘반쪽 공청회’를 열어 비난을 자초했다.

예장백석 내년 설립 45돌 15개 기념사업 추진 속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이 내년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준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백석인의 날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1년간 이어간다. 백석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45주년 기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념사업은 국제포럼, 선교대회, 목회자영성대회, 기념교회 설립, 역사관 조성, 글로벌 인재양성 등 총 15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해외의 성취가 초빙되는 국제포럼이 주목받고 있다. 내년 5월 미국 휘트네 필립 라이언 총장을 주강사로 초청한다. 포럼에서는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1978년 북을 총회로 출발한 예장백석은 설립 40여년 만에 국내외 7000개 교회, 1만2000여명의 목회자가 사역하는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했다. 45주년을 기점으로 1만 교회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3년여만에 모인 청년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부, ‘2022 더 홀리스틱 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혼자가 아니었던 걸 느꼈습니다.” 찬양 집회 ‘2022 더 홀리스틱 페스티벌’에 참석한 이성원(34)씨의 고백이다. 차동훈(32)씨는 “성전 뒷자리에 앉아 성전이 짝 찬 광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청년부가 6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최자실기침금식기도원에서 개최한 이 집회엔 전국 20여개 교회 청년 3000여명이 몰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0년 넘게 매년 현충일마다 청년 찬양 집회를 열어왔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주제 말씀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와 신앙의 회복을 간구했다. 집회는 ‘비우다’ ‘채우다’ ‘흘러넘치다’란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가파오 워십, 아이지야 씩스티원, 팀조슈아, 김상진 같은 찬양팀의 인도에 맞춰 찬양을 따라 불렀다.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구르고 뛰며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로 묵혀왔던 응어리를 예배를 통해 풀어내는 듯했다. 설교자로 나선 이영훈 목사와 강은도 더푸른교회 목사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버텨온 청년들을 격려하며 ‘예수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영을 주리니’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목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목사는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지금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힘이 임해야 한다”며 “성령님이 임하면, 마

음속에 있는 모든 격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또 “거룩한 꿈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대한 소망의 미래로 바꿔주실 것”이라며 “오직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들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며 전성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진행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모금에 동참하며 전쟁의 상흔으로 아파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집회장 주변에서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사업 중인 청년들을 지원·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주회 측이 기도원 곳곳에 마련한 사업장 부스 ‘홀스타운’에 모인 이들은 제과·제빵이나 수제 바느질 공예품 등 직접 만든 소품을 홍보, 판매하며 소통했다.

개신교 6·25 전쟁 때 ‘기독교 의용대’ 조직했다

전쟁 발발 초기 풍전등화에 놓인 국가를 지키기 위해

1950년 6·25전쟁 발발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이 풍전등화에 놓인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 의용대’를 조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도자들은 국방부와 협의해 모병과 신분증 발급, 기초 훈련 등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부대 창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진행했다.

발행하는 ‘신학과 현장’에 실었다. 김 장로는 김 장로를 비롯해 의용대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인터뷰까지 추가해 기독교사상 6월호에 게재하며 기독교 의용대의 전말을 공개했다.

다만 기독교 의용대 이름으로 참전하지는 못했다. 3000여 명이 달하던 의용대원은 북한군의 빠른 남하로 제대로 된 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군 통신대와 미군에 편입된 뒤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미군에 편입된 의용대원 300여 명이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의 전신이다.

김 장로는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면려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서 피란 중 대전에서 환경직 목사를 만나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문힐 뻔했던 역사를 발굴한 건 경원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과 김흥수 기독교사상 주간, 서정민 일본 메이지가쿠인대, 최기영 서강대 교수 등 역사 학자였다. 이들은 2003년 미국 워싱턴주 시에틀의 김병섭 장로를 만나 인터뷰하고 그의 육성을 담았다. 김 장로는 인터뷰 직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 목사와 김 장로는 대구에서 장경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연대급(3000명) 모병은 교회가 하고 신분증 발급과 훈련·무기·식량 지원은 국방부가 맡는다는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방대한 분량의 녹취록 일부는 2016년 목원대 신학연구소가

김 장로는 녹취록에 “7월 중순부터 대구 시내 주요 교회와 중심가에 포스터를 붙여 모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대구제일교회와 남산교회, 서문교회 등 세 교회를 병영으로 사용했고 찬송 ‘십자가 군병들’을

군가로 제정한 뒤 대구 계성학교 운동장에서 국방부가 파견한 교관이 훈련을 담당했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는 “당시 공산당은 민족의 원수로 여기는 분위기가 컸고 교회가 나서 싸움을 말리자는 것보다 아예 맞서 생명 걸고 싸우자는 투쟁 여론이 컸다”면서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놈들에게 박해당하고 해방 후 공산당에게 박해당하며 생긴 반감이 상당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지원병 중에는 강문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과 김소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 등 훗날 사회 지도급 인사가 된 이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다만 북한군 남하 속도가 빨라 7월 말 서둘러 부산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편제를 꾸리지 못했고 부산의 한 우시장에 모였던 병력이 국방부와 미군의 요청에 따라 각 부대로 재편돼 흩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급조된 기독교 의용대가 무리하게 참전해 전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용대 조직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국군과 미군으로 흩어져 전투에 참여한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아펜젤러 순교 120주기 추모 행사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조선에 입국

헨리 아펜젤러(1858~1902)는 감리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조선에 입국했다. 1885년 한국 땅을 밟은 그는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한 회의에 참석차 이동하다가 선박 충돌 사고

로 세상을 떠났다.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천영태 목사), 학교법인 배재학당에 따르면 아펜젤러 120주기 기일인 11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개최

된다. 이날 오전 9시 아펜젤러 묘소가 있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한화식이 열리고, 오후 2시엔 서울 중구 아펜젤러기념공원에서 추모 표식 제막식이 이어진다. 배재대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추모 음악회와 배재학당 디지털 복원 전시회 등을 연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기도회: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후 09:0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h4>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수요성경강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4: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4>뉴욕주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다인종통역예배: 오후 4:00 주일 3부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광일예배: 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진교특별찬양예배: 매주목요일 오전 5:30</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4: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3: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0</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h4>어린양개척교회</h4> <p>담임목사: 유승혜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h4>온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h4>윈즈장으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 수, 금)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7:30 금요성경강좌: 매일(월-토) 오후 7:3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h4>오늘날루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4>멕시코 현지안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북서 신학교 교수 2. 2014년 설립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1)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교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이지만 혼자 끝까지 뛰는 외로운 경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장거리 릴레이 경주이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바통을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같이 뛰어야 하는 축구와 같은 단체 경기이다. 그러나 축구처럼 시간을 정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서 수비를 제치고 골을 넣어야 하는 것 만도 아니다. 선교를 어떤 경기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선교를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모든 수가 함께 엮인 전쟁이라고 말한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전하고 있는 전쟁이다.

과학계의 엘리트들을 교육하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공과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아주 분석적인 두뇌를 가진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전쟁 중에 있던 나라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출전하려고 비행조종사 훈련을 받다가 종전이 되어 군대를 마치고 되었다. 그는 언어학으로 아이비리그인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하였다.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과테말라에서 10년을 섬겼다. 선교지에 있던 그에게 풀러신학교에서 선교대학원을 설립한 도널드 매가브란의 초청이 있었다. 그는 풀러신학교의 교수가 되어 10년 동안 수많은 선교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

후 선교 훈련과 선교 동원을 위한 종합센터의 필요성을 깨닫고 1976년 파사데나에서 이전하는 나사렛대학 캠퍼스를 믿음으로 구입하여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을 설립한 이가 랭킨 윈터이다. 그가 센터를 설립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였다. “나의 주변 세계에 대한 나의 관점이 바뀌었다. 나는 더이상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 나는 점점 물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영적 갈등의 결과로써 더 가까이 바라보고 싶다.” (Mission Frontiers, 1986. 4.1) 그래서 그는 평생을 선교적인 삶은 전사체제의 삶의 자세(War Time Life Style)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

선교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상대를 죽이는

레교 선교회의 대표였던 제리 랭킨과 Lifeway Research 연구소의 스테처는 그들의 책 (영적전쟁과 선교)를 통해 열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참전하고 있는 전쟁이다.

전쟁과 같은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요즈음에는 선교계에 전쟁과 관련되는 용어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바른 것이 아니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의 남침

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에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네 가지 외부 장애물과 다섯가지 내부 장애물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위조 복음이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속여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우리의 감정과 경

모든 민족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사탄의 네 번째 외부 전략은 신자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다.

랭킨과 스테처가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내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전략은 내부, 즉 교회 자체 안에 있다고 한다. 첫째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는 선택사항이라고 확신 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한다. 저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교회는 전도를 위한 세계적인 힘이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왕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자신의 육적인 그리스도인 회원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 헌신하는 교회인가? 경계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에 의해 분리된 사람들에게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었다고 생각하게 하며 속인다. 넷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침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순종 사이의 다리인데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불안정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교회의 영적 활력을 파괴하려고 애쓰면서 내적으로 노력한다. 거룩하지 못한 삶이든, 건강하지 못한 제자이든, 자신만을 믿는 지도자이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연합함은 사탄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악용하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랭킨과 스테처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 가운데서 칭송을 받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인데 대적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고 그의 이름으로 인한 영광을 빼앗으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명백한 결과를 알지만 세상에서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각성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를 점검하게 한다.

선택으로 보는 교회를 찾은 것이다. 둘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침식하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사명은 제거되지 않으면 더 효과가 없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여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교 사업을 위해 부름 받았고 나머지는 면제되

오늘날은 더욱더 교묘하게 영적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원 스토리 20강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출애굽기 - 민수기)

날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이 있는 성막 뜰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뜰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와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친 후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직사각형인 성막은 ‘등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정사각형의 ‘성소’와 다시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정사각형의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그럼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성막의 벽은 역시 조각목 널판을 사용해서 연결했습니다. 널판들은 각각 2개의 은반침 위에 세워져 있었고 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이 모두 금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보면 금으로 싸인 조각목들이 연결된, 금으로 된 벽을 발견하는 것이고 속의 실체를 보면 광야에서 제일 쓸모없는 ‘조각목들’ 일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개인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금과 같은 믿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골 3:14), 진리의 띠(엡 6:14)로 연합되어 믿음을 뜻하는 은반침 위에 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널판’으로 된 벽’입니다.

덮개

성막의 덮개는 모두 4종류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쪽부터 보면 먼저 첫 번째 덮개는 성막 뜰 문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의 4색의 천이 있었습니다(출 26:1-6).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짠 덮개였고(출 26:7)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이 ‘숫양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다(출 26:14).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고도 하는 ‘물개의 가죽’이었습니다(출 26:14).

다른 성막의 기구와 재료들도 그렇지만 덮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성막뜰의 문과 같이 청색은 ‘생명의 색’으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14:6), 자색은 ‘왕권의 색’으로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마 2:2), 홍색은 ‘피의 색’으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백색인 베실은 ‘순결의 색’으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의 재료

인 염소와 양은 모든 제사의 제물로 가장 많이 쓰인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네 번째 덮개인 해달 또는 물개의 가죽은 가장 바깥쪽을 덮

고 있어 해와 바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외관상 가장 불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2,3)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살펴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하여 성막 내부는 성막 외부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막 뜰 밖에서는 그 성막 안이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그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

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돌아본 자들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성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

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막 입구

성막 입구 역시도 성막 뜰의 문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의 4색의 문인데 청색은 생명의 색으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14:6), 자색은 왕권의 색으로

등잔대

성막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위도 물론 완전히 덮여있어

외부의 빛은 없습니다. 오직 등잔대의 빛만 있을 뿐입니다(레 24:1-4). 먼저 등잔대는 보기에 7개의 가지입니다.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3개씩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하여 6개의 가지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7개로 완전해지는 것이고 좌우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천하없이 모두 죄인이므로 ‘사랄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등잔대는 모양이 ‘살구꽃 형상’이었습니다. 살구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정금 1 달란트를 붓거나 입혀서 만들지 않고 쳐서 만들었습니다(민 8: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성도의 고난입니다. 고난과 연단 후 온전한 모양으로 서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모든 기구들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오직 감람유를 사용해서 빛을 비추었는데 그 감람유는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등잔대는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성령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이마에 인치는 사건 (계6:1-3) 찬34장

여섯째 인을 때는 장면이 어린양의 지혜로 심판을 통해 구속 성취를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이것은 온 세상에 일어날 일임을 말합니다. 친구 약 모든 사건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상징 혹은 문자적으로 말합니다. 1절에 "땅 네 모퉁이"가 이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들이 어린양의 인을 맞습니다. 그 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시 곧, 성령세례의 증표이며 성령 인침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택하심을 굳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살아갑니다. 셋째, 구속을 완성하기까지 일반 은총을 보충하십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자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택한 자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 택함받은 자 (계7:4-8) 찬202장

본문에 인 맞은 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째,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만이 구속됨을 강조합니다. 14만 4천 명의 상징 수는 어린양의 뜻대로 택함 받은 자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공훈에 의한 이상적 충만수(정만)"를 가리킵니다. 둘째, 이것은 온 세

상의 친구약의 모든 택한 자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약의 12지파만을 언급함은 단지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첫 번에 시작된 유대 지파는 언약 중심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여기 포함된 우리는 그의 구속을 누리며 세상에 힘써 전해야 합니다.

수 택한 백성들의 찬양 (계7:9-10) 찬194장

14만 4천의 수를 요한은 해석하기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흰옷을 입었습니다. 어린양을 믿음으로 얻은 칭의를 가리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가진 자만이 어린양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려 가지들 가졌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는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를 부르던 무리들의 손에 들려진 것인데 여기에 상징으로 나타남은 어린양만이 죄를 제하고 완전한 승

리를 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택한 백성은 천상 세계에서 오직 어린양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구원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앞선 천상의 영물들의 찬송의 주제에 귀결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결정된 구속 경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찬송을 부를 자들입니다.

목 모든 천사의 찬송 (계7:11-12) 찬504장

일찍이 5장에서 찬송한 천사들은 여기서 또 나타나 성부와 성자 어린양을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첫째, 겸손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좌 앞에 대한 태도는 최대의 겸손과 복종의 자세이며 자아를 부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겸손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둘째, 칠중 찬송은 어린양에게 돌리던 것과 순서가 바뀌었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 내용 하나마다

정관사가 모두 붙은 것을 보면 성부의 주권을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칠중 찬송 전후로 아멘이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구속의 완전한 효력이 충만함을 보장하는 확증입니다. 천사들이 보아온 그 과정에서 살펴보고 얻은 경험적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천사의 찬송을 따라 어린 양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는 성부의 주권을 확증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금 흰옷 입은 자들 (계7:13-14) 찬204장

여기 나온 사람들의 무리는 14만 4천 택한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본문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기를 첫째,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성취도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는 큰 환난을 통과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고난을 통과한 구원의 원리는 이

땅에서도 계속되어 마침내 큰 환난을 통해 구원이 이릅니다. 둘째,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 고난의 바람이 몰려와도 어린양의 피로 씻어질 때 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정제하시는 이 진리를 누리는 택한 백성 곧 구속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토 완성된 구원의 자리 (계7:15-17) 찬206장

첫째, 보좌 앞에 있는 그 자리는 어린양이 계신 자리인데 교회가 그 자리에 섬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어린양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어느 한순간의 간격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존재함을 말합니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이 장막을 치십니다. 천당 생활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치신 장막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교제 곧,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6)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1)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기독교 교육의 선례들을 제시하고 기독교 교육을 명령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역사가 기독교 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증거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인간의 본성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기독교 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추세가 기독교 교육을 요청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기독교 교육의 선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works)와 뜻을 가르치고 배운 예가 신약과 구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무지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교육에 동참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교육은 성경의 가르침에 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뇌와 이성을 주시므로써 인식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성경이 기독교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교육적인 개념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Shema)"입니다. 쉐마는 히브리 성경에서 신명기 6:4-9에 있는 부분의 첫 단어로써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제시하신 교육의 원리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리 1: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 봉사의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봉사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탈진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만이 희생적이고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다"(고후4:5)고 고백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원리 2: 가르칠 내용을 숙지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배우지 않은 것이나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습니다. 이 원리는 교육을 위해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원리 3: 창의적으로 가르치라.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육이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과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이 히브리인들의 삶에 스며있었던 것을 구약의 역사에서 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기 전 이스라엘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외에 선지자, 제사장, 지혜자, 지도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토라(Torah)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교과과정으로 삼았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포함하는 "가르침" 또는 "훈육"을 의미했습니다. 절기와 제사 뿐만 아니라 암송, 이야기, 상징, 문답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유배 생활이 끝난 후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가정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지만, 회당이라는 학교들이 생겨나 자녀들의 교육을 도왔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교사였으며 회당에서는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토라가 교과과정의 핵심이었지만 외경과 위경도 교과과정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암기, 암송과 더불어 대화 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자들은 교육의 책임자, 교과과정, 교육방법에 관해 구약시대의 교육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육의 체계와 요소들이 기독교 교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잭슨빌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아르헨티나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현식 선교사입니다. 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15년 이상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잘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여 몸은 말랐고 낮에는 햇볕에서 활동하므로 얼굴빛은 구릿빛처럼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저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서 간호사 학생은 자기 의사에게 예약할 테니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또바 부족 지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지도자 한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일주일간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함께 심방을 갔습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고통스럽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네게 있는 것 주어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우범지대에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책, 택시비, 그리고 성경 공부,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을 사 갈 잔돈뿐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네게 있는 것을 주어라'라는 말이 무엇인지?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생각하면서 습관에 따라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라는 말인가? 혼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해 둔 돈인데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한 끼 음식도 못 하겠느냐?'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네 형제가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생각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주머니에 푼돈을 다 꺼내어 옆 사람에게 주어 약국에서 약을 사 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약값은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했던 환자는 약을 먹자마자 놀더니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며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교통비도 없었기에 걸어서 집에 오는데 전혀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또바 부족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걸어오는데 25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집 외와 그를 위해 음식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놀랍게도 이날 밤 잠자리에서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해가 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깨어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난 것이 저에게 부활하여 일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같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생각하며 새날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건강하여 숨 쉬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인디언 목사에게 지난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방문해 보았더니 그도 건강해져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인디언 추장의 병을 동시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육체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정현식 선교사

기독교 교육

(14면에서 계속)

신약시대의 교육도 구약의 교육적 토대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서도 가정이 교육의 기본 장이었고, 부모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 세워진 회당에서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에서 신약시대 교육의 백미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 중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진리자

체이시고, 교육의 가치를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셨으며,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적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서에서 60번 이상 선생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교육적으로 유리한 여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디서나 가르쳤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쳤습니다. 사역 전반에 걸쳐 충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에게 진리를 사랑으로 가르치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에 드러난 교육의 선례와 교육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 교육이 교회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jonk@dbu.edu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5. 관심과 배려

성령의 9가지 열매(갈 5:22-23) 중 하나인 '인내(忍耐)'를 영어로 Patience, Endurance, Perseverance 등으로 표현되는데, 그 뜻은 '고통, 아픔, 힘든 일 등을 참고, 견디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즉 인내는 참음과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도 참음과 기다림, 인내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 같이 참음과 기다림의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던 노아는 120년을, 이삭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25년을,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담은 20년을, 꿈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던 요셉은 13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던 모세는 4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고, 우리는 지금 재림하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참음과 기다림

다. 원망하면, 불평하게 되고 인내가 소용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듯, 지금까지 받은 6가지 영적 훈련(겸손, 순종, 감사, 섬김, 분별, 절제)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혼법정에 선 아내가 "이 사람한테 10년을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여인은 참은 게 아니고, 10년간 버리고 버려왔음을 얘기합니다. 10년이건, 100년이 건 시간은 문제가 안됩니다. 원망이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내란 원망, 불평, 자기합리화, 책임전가 없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살다 보면, 결혼 전, 연애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결점과 단점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갈등이 시작되고, 서로 이해하며 알콩달콩 잘 살다가도 관계가 여러 차례 오게 되고, 결혼 후유증으

인내는 가정문제 해결의 막장 기독교는 참음과 기다림, 인내의 종교

의 인내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11절에서, '인내'를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받아야 할 7가지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밑바탕,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 신앙이 돈독한 척 허장성세를 부려도, 신앙의 영적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고난과 핍박, 시험과 문제, 실패와 파산, 질병 등이 예고 없이 다가올 때, 와우아파트나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7가지 영적 훈련(겸손, 순종, 감사, 섬김, 분별, 절제, 인내)을 다 받아야 하는데, 앞선 6가지 영적 훈련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쌓아 온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도가 꼭 받아야 할 영적 훈련의 마무리, 완성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가정문제 해결의 막장, 마지막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약 5:9)고 했습니다. 길이 참을 때, 조심할 것 한 가지는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

로 우울증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편의 술과 담배, 외박과 외도, 무능 등에 대한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 그리고 아내의 사치, 외도, 가정살림 불성실, 자녀교육 방임 등에 대한 남편의 불만 팽배 등으로 부부싸움이 야기되고, 험기와 분노를 부리며, 빠침으로 침묵, 별거의 단계로 이르고 급기야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엢 4:26-27),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질제 못 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7:5),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파괴는 사탄의 말세기적 작전이며, 사탄이 손뼉 칠 일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부부간에 큰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가정문제 앞에 원망, 분노, 험기, 다툼, 폭행, 침묵, 별거, 이혼 없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므로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생명의 면류관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오늘과 내일을 위한
사람의 첫 걸음

십계명

우리의 복 하나님의 부르심(별책 첨부)

저자 **강기봉** 목사

십계명은 오래되고 이미 알고 있고 지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소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간의 속사람을 점검하며, 온 세상이 살피 따라야 할 인간의 첫 걸음입니다. 십계명은 삼위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 온라인 : WWW.HISFINGERMALL.COM 출판상담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Hisfinger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 8:3)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인/터/뷰

필리핀 - 이상엽 선교사 가정

차세대 한인 2세 목회자로서 필리핀 장기선교를 준비하고 직접 후원 모금 진행
7월에 필리핀에 도착 예정, 현지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사업 진행 중

이상엽(Rev. James Lee) 선교사는 뉴욕에서 성장한 한인 이민 2세 목회자이다. 이상엽 선교사 가정 사인(Shine) 사모와 두 딸 Maya, Ava)은 필리핀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올해 7월에 필리핀으

로 장기선교를 떠나게 된다. 그동안 장기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 과정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이상엽 선교사 가정

▲어떻게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아내와 저는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장로교회에서 만나게 되어 2011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계선교에 대한 동일한 비전과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사인은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로서 필리핀에서 자라났습니다. 사인의 부모님(최용기, 강미선 선교사)은 이미 필리핀에서 30년간 선교사로서 민도로섬(Occidental Mindoro) 지역에서 신실하게 선교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필리핀 망안산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지역 교회들을 민도로섬 지역에 설립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인 ANMS(All Nations Mission School)를 1994년에 설립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감당하신 선교사역과 비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필리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기선교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 중, 대형태풍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섬안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 민도로 현지의 상황과 망안족 사역자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함께 지내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마다 태풍이 불고 그러한 자연환경 때문에 매년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복음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망안산지족들을 위한 신학교 운영과 목회자 양성을 향한 비전이 되살아나면서, 장기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2년 동안의 선교준비를 끝내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6월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7월에 선교지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어떤 단계를 통하여 준비하고, 파송 받게 되셨습니까?

미국장로교 PCA 교단의 선교단체인 MTW(MISSION TO

THE WORLD)를 통하여 장기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 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장기선교사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과 문제들을 MTW를 통하여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MTW와 협력하여서 신학교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선교비용 후원 모금은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까?

필리핀 장기 선교사로서 떠나기 전에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희 가족이 생활하며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 생활 후원금과 사역지 신학교를 운영하는 후원금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계획과 진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모금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많은 교회들 및 후원자님들과 Zoom Meeting으로 선교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모든 분의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모금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미팅과 발표 시간들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사역지 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현지에서 사용할 차량 구입을 위한 모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교사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선교사역은 아내 Shine의 부모님이 섬겨오신 사역지를 이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 지도자, 목회자들을 신학교적으로 양성하는 신학교 운영과 신학교육 커리큘럼을 더욱 보강하여 양질의 신학 교육을 현지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신학적인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하여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TS)와 고든콘웰(GCTS) 신학교의 교수님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조직신학과 여러 신학교육과

정의 커리큘럼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ANMS를 통한 목회자양성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특히 현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목회자/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자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돕는 손길과 함께하길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 꿈을 꾸는 차세대를 위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첫째로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사로서 신학적인 공부를 한 목회자라면 좋겠지만 목회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로서, 엔지니어로서, 건축가로서, 의사로서 그 누구라도 선교에 열정과 비전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하여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 선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에게 선교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직장, 캠퍼스, 그 어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며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이 세상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후원 정보 및 문의: <https://linktr.ee/shineandjames> (김재상 기자)



책 소개



석정희 시인

다섯 번째 시집 <내 사랑은>

“강물이 숨 죽여 바다로 잦아들 듯/ 바닷물이 조용히 모래톱에 스며들 듯/ 바람이 수줍게 나뭇가지에 안기듯/ 안개가 소리 없이 바위산을 감싸듯/ 흰눈이 소복소복 빈들에 쌓여가듯/ 사철을 따라 조금씩 그 힘을 키워 가듯/ 한밤에 돌아보면 혼자서 피어있는 달맞이 꽃...”

석정희 시인의 제 5집 '내 사랑은'이 출간됐다. 시인은 “꽃이 피었다는 감탄조차 제대로 내뱉어보지 못하고 인생의 봄은 쓸쓸히 저물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더 명료하게 확인되는 계절”이라고 인생의 봄을 표현하며 봄의 끝자락에서 시집을 완성해 냈다.

그동안 쉽 없이 시인으로 귀한 글귀를 담아 시집을 출간해 오던 석정희 시인은, 올 봄에 또 한편의 시집을 출간하며 “코로나로 힘들었을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고 병마와 싸우는 남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시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출간목적을 표했다.

본 시집은 1부 '우리에겐 꿈이 있다', 2부 '시월의 기도', 3부 '한 두름 조기에서', 4부 '내 사랑은', 5부 '어울리고 어울려서'로 나뉘어져 각 부마다 20여 편의 시를 수록했다. 새한일보 이현수 논설위원

은 추천서를 통해 “문학이 외면 받는 시대라는 말은 시인 석정희와는 무관하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현실을 보는 마음은 그대로임을 알았다. 시문학의 큰 별로 자리할 시인의 문운을 기원 한다”고 석정희 시인을 치하했다.

또한 구인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안정감과 시어를 고풍 줄 아는 탁월한 안목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장을 풀어가면 숨쉬 또한 매끄러워 일품이다. 미국 한인사회에 한 알의 밀알이 되듯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동포애와 삶의 청량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격

려하며 추천사를 보냈다.

석정희 시인은 현)한국신춘문예협회 중앙회 이사, 미국 LA 본부장을 섬기고 있으며 수많은 수상작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Alongside of the Passing Time 영시집 5인 공저, Sound Behind Murmuring Water 영시집 4인 공저, 제1시집 <문 앞에서> In Front of The Door 한영시집, 제2시집 <나 그리고 너> 가곡집 <사랑 나그네>, 제3시집 <강> The River 영문시집, 제4시집 <엄마 되어 엄마에게>,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 등이 있다.



저자와의 연락은 E-Mail sign7006@hanmail.net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022년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2

장학생선발공고

목적 | PURPOSE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력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1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 2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 3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1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 2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 3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1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1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 4 추천서 2통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 5 본인 재학 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외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 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2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2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1	김득렬 목사, 김복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Rev. Tukryul Kim & The Kwonsa Bock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2	김득렬 목사 가족 특별 장학생 1명 The Rev. Tukryul Kim's Family Spec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3	추형욱 목사, 손철수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Rev. Hyoungok Joo, The Elder Chulsoo So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4	주요남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5	이민근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Minkeun Lee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6	왕수복 장로 장학생 1명 The Elder Soobok Wang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7	홍길두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Gil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8	김광영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Kwang Yea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9	신봉성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Kwonsa Bongssang Shi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0	이범열 집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Deacon Bumyul Yi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1	New Life 랜싱 한인 장로교회 장학생 1명 New Life Lansing K.P.C.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2	여명자 목사 장학생 1명 The Rev. Myungja Yoo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E-mail: kapsf2020@gmail.com, 문의: 734-693-1888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2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2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박태수 장로 서기: 김중대 장로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는 크리스천저널 웹사이트 kcjlogos.org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